

##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재단 출범·법 정상 이행” 촉구

### 국회서 국민보고대회 열려... 정치권 책임론 제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는 김기현·박충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연맹이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 관련 제도 운영 공백을 언급하며 북한인권법의 정상 이행을 촉구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기조강연,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기현·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개회사를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 인권법의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실천과 그에 따른 북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북한인권재단 출범 의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던 북한 인권 보고서도 지난해부터 발간되지 않고 있다. 인권 없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법이며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헌법적 책무다. 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이 자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주관단체 “법은 구조선... 화요집회 347회, 이제 출항해야”  
이어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며, 정상 시행을 촉구해 온 화요집회가 347회를 맞는 날이다.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는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가 현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북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심각성과 규모가 현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그는 이어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했고, 북한 인권 대사는 공석이며, 정부 보고서 발간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중이위의 선언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구할 수 있는 구조선이다. 이제 그 배가 출항해야 한다. 10년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선영 전 진실과 화해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축사를 전했다. 이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조강연을 전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 “COI 보고서 독

립적... 핵심 과제 미이행” 지적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정치적이기 않았고 독립적이었다. 특별보고관도 보고서 이후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의 진실성과 청렴성은 조사 방법이 보장한다.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북한 현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있어 목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이 법은 인권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됐다. 남북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하며,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연구와

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이 구상했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개선 요소들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행동 계획과 시민 대화, 공동체 참여의 단계별 실행이 없다면 인권 상황은 얼어붙은 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회장 “사문화 과정 짊고, 공표·청원법정 투쟁 검토” 제안  
이재원 회장(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은 발제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들게 된 경과와 사문화 과정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COI 보고서가 발표된 뒤 북한 인권 문제에 이문을 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럼에도 법 제정 이후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확산·공표·토론·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압박해야 한다. 최근 재단 이사 추천 미이행과 관련한 소송이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간접경제 등 추가적 압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청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해야 한다. 이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심을 단단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데서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했다.

한편 토론은 김태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태영호 전 국회의원(2대), 이한별 인권위원(국가인권위원회), 장만순 위원장(일천만인산가족), 강철환 위원장(탈북민 전국위원회), 리소라 대표(모두모이자)가 참석했으며 ‘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및 선언문 전달식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 “여성 목사 불가 명시... 강도사 길은 개방”

### 예장합동 여성사역자위원회, 3일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 서북권 설명회 개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여성사역자위원회(여사위, 위원장 조승호 목사)가 3일 대한교회(담임 윤영민 목사)에서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 수의를 위한 서북권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신학적·성경적 근거를 설명했다.

지난해 제110회 총회에서 결의된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 사역자들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헌법에 명시된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개정하는 한편,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 조항을 ‘만 29세 이상인 자에서’ ‘만 29세 이상 남자’로 수정했다.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되, 강도사로서 공적 설교 사역의 길을 여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발제에 나선 배준섭 교수(총신대 신대원은)는 “기존 헌법의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 용어로 바꾸는 개정안은 목회자라는 용어가 교회 내 사역자 범주로 넓게 쓰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로 인해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이 허용된다는 함의를 지닌다. 여가다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해 여성 안수를 막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부교역자 수급에 도움이 되면서 교단의 신학과 배치되지 않

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강도권은 교회의 리더십 아래 설교할 수 있는 공적 자격 및 기능”이라며 “예장합동 헌법은 목사와 강도사만을 공적인 설교자로 인정하고 있어,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해도 여성은 공적 설교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경은 여성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미리암, 드보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브리스길라도 남편과 함께 아블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전 14:34에 대해서도 “여자들의 절대 침묵이 아닌 교회 질서를 말한 것”이라며 “여성 강도사역은 성경이 절대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하는 여성 안수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다. 여성 안수와 여성의 강도권 허락은 별개의

문제”라며 “여성 강도권 인하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 “목회자 지원 학생 수 감소 등 부교역자 수급이 부족한 현실적 상황에서 총신대 신대원 여학생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데다 여성 교역자들의 이탈율이 증가하는 어려움까지 겹치고 있다”며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면 총신 신대원 여학생 숫자 증가가 예상되고 부교역자 수급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학 목사(신학교회, 전 헌법개정위원장)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여성 일꾼을 문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성 강도권은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단에 주신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전국 165개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친다.



설명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노회 과반수(83개) 이상의 찬성, 각 노회 투표 참여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 수의 과정은

조항별 축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제111회 총회에서 수의 결과 보고를 받고 허락하면 시행된다. 노형구 기자

##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로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 “3·1정신, 다음세대 신앙유산으로 계승하자”

## 한장총, 3·1절 기념예배 및 원데이캠프 개최... 청소년 1천여 명 참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념예배를 드리며 3·1운동의 신앙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한장총은 최근 봉담중앙교회에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원데이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장총 3·1절기도위원회와 다음세대위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1천여 명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다.

1부 예배는 3·1절기도위원장 모종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다음세대위원장 김용희 목사가 기도하고, 한장총 서기 표성철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으며, 군포제일교회 송암어린이합창단이 특송을 맡았다.

설교는 한장총 증경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일어나라, 성령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권 목사는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개의 신앙교육을 잊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았다"며 "신앙 안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의 뿌리를 기억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대한민국의 에스더, 유관순이 되어 이 나라를 살리는 다음세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대회사에서 "3·1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모인 귀한 날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들, 특히 원데이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 여러분을 환영하



한장총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원데이캠프'를 개최했다. ©한장총

고 축복한다"며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했다.

한장총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는 축사

를 통해 "신앙은 골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기념예배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개혁신교 총무 강동규 목사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제107주년 3·1절 기념예배에서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가 대회를 전하고 있다. ©한장총

"3·1운동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교회가 희망의 등불이 되었던 시간"이라

며 "한장총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쓰임받는 연합체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장총 총무 조세영 목사의 광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를 외치며 107년 전 만세운동의 합성을 재현했다. 만세삼창은 공동회장 고성현 목사와 합동중앙 총무 이승진 목사의 선창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축도는 공동회장 신용원 목사가 맡았다.

예배 후 오찬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참석자들은 오후에 이어진 3부 원데이캠프에 참여했다. 캠프에서는 징검다리선교회 임우현 목사,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 하기오선교회 이임열 목사가 강사로 나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방법을 전했다.

이날 캠프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카이노스찬양팀과 하기오선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다.

김진영 기자

## 민족복음화운동본부 "100만 영혼구원 향한 전국대표단 결집"

### 2027 대성회 앞두고 제5차 준비회의 개최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대규모 복음운동을 준비하는 실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서 '100만 영혼구원을 위한 전국지역대표단 워크숍'

제5차 행사준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준비위원장인 이태희 총재 목사 주재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워크숍 전반에 대한 실행 점검과 분야별 세부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강복렬 목사(여성 운영대회장), 신석 목사(상임 준비위원장), 손보라 목사(여성 총본부장), 윤유섭 목사(성회 사무총장), 백현우 목사(성회 강사단), 장사무엘 목사(상임대회장), 김약배 목사(본부 사무총장), 추경일 목사(대학청년다음세대 본부장), 김호승 목사(홍보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교회여 일어나라! 민족을 복음으로!'를 슬로건으로 전국 지역 대표단 500여 명을 초청해 2027 대성회를 향한 조직적·영적 결집을 도모하는 전략 워크숍으로 기획됐다.

이날 제5차 실무자 회의에서는 영상·미디어 전략, 음향·무대 시스템, 홍보 전략, 행사 운영안, 안전·위기관리 계획, 초청 대상자 선별 기준 등 분야별 실행계획이 집중 점검됐다.

영상·미디어 분야에서는 오프닝 및 비전영상 제작 콘셉트를 확정하고, 현장 중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실무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계와 기록 영상 아카이빙 체계 구축, SNS 확산용 숏폼 콘텐츠 기획안을 논의했다. 음향·무대 부문에서는 컨벤션홀 구조 분석에 따른 음향 설계와 무대 동산·조명 구성, 찬양 및 메시지 전달 최적화 방안을 점검했다.

홍보 부문에서는 교계 언론 및 방송사와의 협력 확대, 지역대표단 초청장 발송 일정 확정, '100만 영혼구원' 비전 캠페인과의 연계한 홍보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박 3일 프로그램 타임라인을 재검토하고, 개회예배·비전선포사·결단기도회 구성안을 보완했으며, 분인토의와 지역 네트워킹 세션 운영 방식도 확정했다.

안전·위기관리 계획도 주요 안전으로 다뤄졌다. 참가자 안전 매뉴얼 수립, 응급

대응체계 및 보험 점검, 인원 통제와 동선 관리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전국 광역기초 단위 대표성을 확보하는 초청 기준과 차세대청년 리더 포함 여부, 교단 협력 구조 등도 논의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라 2027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영적 방향 설정"이라며 "100만 영혼구원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목표"라고 했다. 이어 지역대표단이 각 지역에서 복음운동의 불씨가 되도록 실질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준비위원회는 워크숍 이후 3월 중순부터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세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3월 말부터 홍보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키오텍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키오텍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메달 수여식 개최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다짐

### 국회 박물관서 300여 명 참석 독립선언서 한글판 낭독과 평화메달 시상 이어져

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이 최근 국회 박물관(구 헌정기념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메달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매년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3·1운동 기념행사로, 주최 기관 관계자와 각계 내외 귀빈 등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념식은 김도이 이사장이 겸 배우의 사회로 시작했다. 신부호 기념재단 대외협력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으며, 이어 김영진 기념재단 이사장이 기념사를 전했다. 김영진 이사장은 전 농림부 장관이자 5선 국회의원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3·1정신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 장상진 국무총리서리,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유진현 기념재단 공동회장 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위원장, 이우란 감람산기도원장 겸 UN평화마을 창시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3·1정신의 계승과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뜻을 모았다.

◆독립선언서 한글판 낭독으로 3·1정신 되새겨

행사에서는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역사적 장면을 가리는 순서가 마련됐다.

기념재단의 계승세대 이사인 신관섭, 김태성, 백진주, 노진욱 이사가 알기 쉬운 한글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3·1운동의 정신을 현재로 이어가는 상징적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1운동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치임을 확인했다. 행사장에서는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 당위성과 기록 보존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했다.

◆평화메달 수여 및 사업이사 위촉 진행

이날 기념식의 또 다른 주요 순서로 평화메달 수여식이 이어졌다. 평화메달은 유진현 민주평통 국민소통위원장 겸 공동회장, 김자형 룩스빛아트컴퍼니 대표, 박지혁 비체나 세계운동본부 사업단장, 어준혁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천만주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시설물위원장 등 다섯 명에게 수여됐다.

시상은 김영진 기념재단 이사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장상 기념재단 상임고문, 황우여 기념재단 상임고문이 맡았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평화와 화합, 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써온 활동을 소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촬영. ©주최측 제공

하며 3·1정신을 실천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업이사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노진욱 글로벌다이렉트 대표가 사업이사로 위촉됐으며, 김영진 이사장과 유진현 공동회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3·1정신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닌 현재의 가치”

행사 말미에는 윤재환 비체나 총재이자 기념재단 상임고문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후 출연자와 참석자 전원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며 기념 촬영을 진행했고,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메달 수여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 이사장은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자주와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지는 날까지, 그리고 3·1정신이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 급변하는 시대 속 '성경적 성교육'의 길을 묻다

### 카도쉬아카데미, 인천 온세계교회서 '성경적 성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다음 세대 위한 신학적 기준 점검

카도쉬아카데미(설립자 이재욱 목사, 2기 공동대표 최은정목사)가 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소재 온세계교회에서 '성경적 성교육,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제1회 성경적 성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카도쉬아카데미가 주관하고 아인플러스컬러가 협력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 교육 현장과 신학적 논의를 연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성경적 성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신학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경적 성교육, 단편적 처방 아닌 규범적 기준 점검'

개회사를 전한 이재욱 목사는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성경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경적'이라는 표현은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익숙함이 곧 정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성과 관련된 논의가 복잡해지고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회가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단편적 구호로 반응해 온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이 필요하다. 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앞서, 우리는 '성을 어떠한 신학적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특정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 아니라 기준을 점검하는 자리이며,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논의를 시도하는 자리

다. 성경이 교회의 최종 규범이라면, 성과 교육의 문제 또한 그 규범 아래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최은정목사는 "흔란한 시대 속 다음 세대가 다양한 가치관과 정보의 홍수 가운데 놓여 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의 기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세우도록 돕는 일은 시급한 사명"이라며 "세미나가 성경적 성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교회와 교육 현장에 건강하고 거룩한 성 가치관이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론과 현장의 목소리, 신학적·교육학적 통찰을 균형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모와 교육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경적 이해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천적 지혜가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류현모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는 "성경적 성교육이 종교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인간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인간의 정체성, 가족, 공동체,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의 교육 실천과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



카도쉬아카데미 제1회 성경적 성교육 학술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김상고 기자



이재욱 목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이승원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경적 성교육의 신학적 구조와 교회론적 이해 제시'

이날 발표는 이준성 박사(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재욱 목사(카도쉬아카데미 설립자)는 '성경적 성교육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목사는 "성경적이라는 표현이 특정 교육 방법이나 기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통전적 계시를 기준으로 인간 이해와 윤리 판단, 교육의 방향을 평가하려는 규범적 개념"이라며 "따라서 성경적 성교육은 하나의 프로그램 명칭이 아니라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구속사적 구조 안에서 인간과 성을 이해하고 교육하려는 신학적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14년부터 이어진 개인 연구와 2015년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2018년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 제언, 2020년 공적 제시 시도, 2021년 교육 체계 정리, 2022년 공식 발표 이후의 검토 과정을 언급하며 "성경적 성교육 논의가 축적된 연구와 실천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왔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합법성을 얻는다고 전제하며 "결혼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는 성경적 비유를 언급하며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본질을 손상하지 않은 채 신비로운 연합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결혼 안에서도 남녀가 각자의 독특성을 유지한 채 상호적으로 연합한다"며 "또한, 결혼 관계의 해체와 관련해 배우자의 음행이나 신앙 차이,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경우 이론이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이 중보적 왕권을 의미한다"며 "이 원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생애 주기별 성교육과 교회 교육 현장 적용 방안 논의'

민성길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는 '생애 주기별 성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성 관련 문화 현상을 언급하며 "기독교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아·청소년 성교육은 발달 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와 교사는 각 단계의 생물·정신·사회적 발달 수준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사는 네 차례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과 플로어 토론 순서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카도쉬아카데미 제1회 성경적 성교육 학술세미나 진행 사진. ©김상고 기자

## 러시아 하바롭스크 구금 박태연 선교사, 가택연금 후 다시 외국인 구치소 이송

### 불법 이주 혐의로 수사 중... 한국 순교자의 소리, 온라인 청원 통해 석방 촉구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체류) 조지 혐의로 구금된 박태연 선교사(사진)가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다시 외국인 구치소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 목격자들에 따르면 박 선교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택에 머무르기로 합의해 교도소에서 풀려났으나, 다음 날 복면을 쓴 사법 집행관들이 자택을 방문해 그를 강제로 연행했다고 전했다. 이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나 목적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박태연 선교사가 70세 은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기 일주일 전인 1월 15일 러시아에서 체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석방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가택연금 합의 이후 재구금... 장기형량 가능성 제기'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한국 영사관 직원의 면회를 받고 가족

및 지인과 제한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선교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박 선교사의 활동 전반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5년에서 10년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불법 이주 혐의뿐 아니라 종교 활동과 관련한 추구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 국영 통신 RIA는 1월 23일 보도를 통해 하바롭스크의 한 어린이 종교 캠프에 대해 수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대한민국 국적 시민의 선교 활동이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어린이들이 성경을 장시간 필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한국으로 데려가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청원 3,200명 참여... 5천 명 사명 목표로 확산'

에릭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한 달 이상 구금 상태에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감자 처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지켜지도록 외부의 관심과 감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박태연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3,2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 폴란드, 호주 등 여러 국가 시민들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 주최 측은 3월 중순까지 5천 명의 서명을 확보해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실 연휴 직후 전달을 검토했으나, 해외 언론 보도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추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체포 직전 귀국 준비... 기자회견 통해 석방 촉구'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숙 폴리 대표는 박태연 선교사의 체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박 선교사가 1993년 러시아에 입국한 이후 30여 년간 현지에서 사역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박 선교사가 범죄 전력 없으며, 독신으로 자내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나 불온한 의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가 이미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상태에서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체포됐다고 전했다. 단체 측은 박태연 선교사의 석방과 귀국을 촉구하며, 온라인 청원을 통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 AI시대, 다음세대 선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한국선교신학회, '다음세대와 선교' 주제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선교신학회(회장 허준)가 최근 대전 중구 소재 대흥침례교회에서 '다음세대와 선교'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Z세대와 MZ세대를 비롯한 다음세대를 향한 선교 전략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AI시대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석재 교수(서울신대)가 'Gen Z세대 트렌드와 선교'를, 이승병 교수(주안대)가 'Z세대 선교를 위한 예배음악 연구'를, 반광준 교수(숭실대)가 'MZ세대의 건강한 삶에 관한 제언'을, 김미숙 박사(전주대, 주동행교회)가 'AI시대, 다음세대의 종교적 현실 구성과 세대통합적 선교 생태계 회복'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세대 선교의 방향성과 교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세대 이해에 기반한 선교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Z세대 트렌드와 다음세대 선교 전략  
전석재 교수는 Z세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을 토대로 다음세대 선교의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Z세대가 미래 세대의 태어날 세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 출생한 청년학생 세대를 의미한다"고 했다.

트폰과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해 왔다"며 "SNS를 통한 수평적 상호작용에 익숙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Z세대는 '공정과 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며, 사회와 교회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환경 보호,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공정함을 곧 정의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이 많은 세대이면서 영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에도 관심을 두는 세대"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Z세대를 향한 전도 전략으로 전 교수는 관계 중심의 전도, 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도, 미디어 사역을 통한 전도를 제시했다. 그는 "Z세대가 디지털 콘텐츠와 매체를 통해 배우고 관계 맺는 특성이 강하므로 교회가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며 성경공부, 예배, 취업과 진로 콘텐츠 등 실제적 필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 "온라인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에 인터랙티브 요소를 도입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방식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한국선교신학회 2026년 제1차 정기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한국선교신학회

제안했다. 전 교수는 "교회 내부 활동에만 머물지 말고 학교와 기관 등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멘토링과 코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관계적 접근이 Z세대 선교의 접착점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이라고 전제하며 "지역사회를 품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구체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에 Z세대를 향한 사랑의 환대가 요청된다"며 "Z세대의 삶의 필요를 이해하고 발견해 이를 채워가는 필요 중심적 전도가 요구된다. 환대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 속에서 복음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예배음악과 Z세대 선교 동원  
이승병 교수는 현대 예배음악과 문화의 관계를 분석하며, 오순절 예배가 청년 세대의 영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조명했다. 그는 "오순절 예배가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특성을 지니며, 시대 문화와 청년들의 영적 욕구에 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순절 교회는 청년들이 교리적 설명을 넘어 체험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 체험 중심의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어 왔다"며 "이러한 예배는 교회 성장과 선교 동원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체험에 치중한 신앙의 위험성과 예배 콘텐츠의 신학적 깊이 부족 문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 잡힌 가르침과 제자훈련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예배의 불길을 유지하면서 이를 선교의 추진력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의 현상이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공간이 될 때, 다음세대 선교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배와 선교가 분리될 수 없

다. 열정과 체험이 살아 있는 예배를 통해 Z세대가 복음의 실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며 "이 시대 교회는 예배의 변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역동성을 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MZ세대의 건강한 삶과 영적 회복  
반광준 교수는 MZ세대가 겪는 삶의 위기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청년 세대의 삶의 위기가 단순한 신체적 과로를 넘어 전인적 소외와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분별한 디지털 접속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활성화를 저해하고 생활의 여백을 축소시킨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한 삶은 가능 정지가 아닌 창조 질서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식의 패러다임을 기능적 충족에서 실존적 성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간을 자본으로 환원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창조주께 삶의 주권을 불환하는 시간의 성소를 세우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체적 항상성 회복을 안식의 신학적 기초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숙면과 영양, 규칙적 운동을 통해 신체 리듬을 복원하는 과정이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는 선결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를 내려놓고 대자연과 마주하는 단절의 연습과 예술적 향유를 통해 내면의 서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식을 기쁨의 축제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반 교수는 "안식의 회복이 곧 존재와 관계의 재배치라고 결론지으며, 창조주가 설계한 생명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I시대와 세대통합적 선교 생태계  
김미숙 박사는 AI시대 선교 담론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교회가 기술적 효율성을 경쟁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영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교의 질문을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서 '왜, 무엇을 위해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디지털 공간의 창출을 넘어 다음세대의 삶 속으로 들어가 관계적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공간을 넘어 시간으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 가능한 선교의 핵심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세대 간 신앙 서사가 축적되는 관계적 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AI는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해 응답을 산출하지만 영혼과 생명의 역사를 가질 수 없다"며 "기독교 신앙은 죄와 구원, 사랑과 용서라는 서사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경험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영적 실존은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겪는 다음세대와의 단절은 신앙 서사의 시간 단절 문제"라며 "기술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위기이며, 세대가 함께 삶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관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은 선교의 목표가 아니라 세대 간 관계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형 공동체를 지향하되, 목적은 공간 확장이 아닌 시간 심화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AI시대 다음세대 선교 전략을 공간 확장형과 시간 심화형으로 구분하며, 지속 가능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후자에 사역적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유물론적 세계관을 경계해야 하며, 교회 교육 모델을 정보 전달 중심에서 관계적 멘토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 위(18위)  
LX Z:in 창호

## 주다산교회, 3·1절 기념예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애국·신앙 다짐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주다산교회(담임 권순웅 목사)가 최근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나라사랑과 신앙적 사명을 되새겼다. 매년 전 성도가 참여해 기념예배를 드려온 가운데, 올해는 교회가 진행 중인 '예수 스파크 치유축제'의 일환으로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예배는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로 이어졌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특송과 권순웅 목사의 설교가 진행됐다. 권 목사는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본문으로 "31절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은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비폭력 운동이자 원수사랑을 실천하며 세계평화를 선언한 사건"이라며 "그 정신은 다음 세대에까지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특히 화성 지역의 역사적 미도 언급했다. 그는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역사이며, 화성은 제암리교회와 성도들의 순교로 인해 더욱 뜨겁게 확산된 성지와 같은 곳"이라며 "오늘 주신 말씀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정명근 화성시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31절은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백성에서 국민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 지도자였고, 이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서도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만큼 앞으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예배



주다산교회 3·1절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주다산교회

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직전 총무 강동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교회는 예배 이후 '예수 스파크 치유축제'를 이어가며 경배와 찬양, 김수지 찬양사역자의 찬양간증집회, 이병준 목사(파란리본패밀리브리치 대표)의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의 3요소' 강의 등을 진행했다. 이어 권순웅 목사의 치유메시지와 성령 기도회가 열려 성도들이 영적 회복과 공동체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영 기자

## 거룩한방과제, 내달 6일 국회서 ‘차별금지법·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 개최

‘거룩한방과제’ 통합 국민대회 측은 주관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가 3월 6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개최 예정인 ‘역대 최악 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를 앞두고 관련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는 조배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홍호수 목사(정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가 사회를 맡는다. 조배숙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가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발제 순서에서는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차별금지법이 여성과 사회적 약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가 ‘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을 각각 다룬다. 토론 시간에는 주요섭 대표(반동성애 기독교인연대)가 종교의 자유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짚고, 현숙경 교수(원신대)가 유엔 권고의 법적 성격을 설명한다. 신효성 교수(명지대)는 법안에 포함된 금지대상 규정의 위헌성과 관련 법적 문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전화(02-2603-0815) 노형구 기자



# 뉴욕목사회 54회기 1차 실행위원회 개최

## 교회 회원 징계 결정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키로

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박희근 목사)가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뉴욕총신교회(담임 안재현 목사)에서 제54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단행한 회원 제명 및 징계 결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뉴욕교협은 1차 암 실행위원회를 통해 일부 목회사 회원들에 대해 제명 및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현 목사회 회장과 부회장도 포함되면서, 이후 목사회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조사 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문서화

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교협의 징계 결정 배경과 과정, 그리고 정당성 여부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위원 선임은 임원회에 일임했으며, 교협 징계 당사자는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목사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교협의 징계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교계 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목사회 회원들 다수는 교협의 징계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회기 교협 회무 절차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다.



뉴욕목사회 실행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목사회 박희근 회장이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일각에서는 교회들의 연합기구인 교협이 대립 구도로 비쳐지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계

한 관계자는 “양 기관 모두 한인교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감당해 온 단체인 만큼, 갈등이 확대되보다 대화와 조율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대원 기자

##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로”

### 시애틀 비전교회 창립 46주년

시애틀 비전교회(담임 고창훈 목사)는 지난 22일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훈 목사는 “지난 46년 동안 시애틀 비전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며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교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가득한 교회,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독려



시애틀 비전교회 고창훈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했다.

이어 그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교회, 3 세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

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자”며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시애틀 비전교회는 창립 46주년을 맞아 국내 선교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회는 현재 동역 중인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를 2년 더 후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차세대 사역 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KM 예배를 섬기는 대학생들에게 장학

금을 지급하고, 올 가을 탈북신학교에 진학하는 로라 간사의 학비도 후원하기로 했다.

고 목사는 “지금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앞으로 세 교회, 일곱 교회, 열 교회로 확장해 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교사들을 후원하

고, 교회에서 사역할 신학생들을 적극 후원해,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시애틀 비전 교회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지난 46년 동안 시애틀 비전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며 “아름답고 위기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고 고백했다.

성도들은 이어 “이 지역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초대교회

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지역과 국가, 온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 달라”고 간구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김민선 기자

## “믿음의 역사·사랑의 수고·소망의 인내로 세워지는 교회”

###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 창립 38주년 연합예배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담임 최병삼 목사)가 지난 22일, 창립 38주년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되새겼다.

이날 “진정한 교회(데살로니전서 1:3-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최병삼 목사는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의 숫자,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며



순복음 타코마제일교회 창립 38주년 연합예배에서 설교하는 최병삼 목사 ©교회 측 제공



기념촬영에 임한 교회 관계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진정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믿고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며 자기 몸을 드러 섬기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김민선 기자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박재진 장로의 시무장으로 취임하는 축하해 전달식도 진행됐다. 김민선 기자

## 가든그로브 양로보건센터서 건강 세미나 성황

### 성동진 내과 전문의 “지방은 적지 아니다”...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한 영양 재해석

2월 25일 가든그로브 양로보건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건강 세미나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강연은 센터메디컬그룹 소속 성동진 내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최근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발표한 최신 영양 가이드라인과 함께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건강 상식의 재해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약 150명의 시니어가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성 전문의는 이날 강연에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식습관과 건강 정보 중 상당 부분이 최신 연구를 통해 다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기존 인식과 식품 선택에 대해 명확히 바로잡았다. 과거 저지

방 우유와 계란 흰자만을 권장했던 것과 달리, 전지우유(whole milk)와 계란 노른자까지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해 시니어의 호르몬 균형과 세포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리얼과 정제 곡물, 설탕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성 전문의는 “단순히 지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식습관과 질 높은 지방 섭취가 장기적인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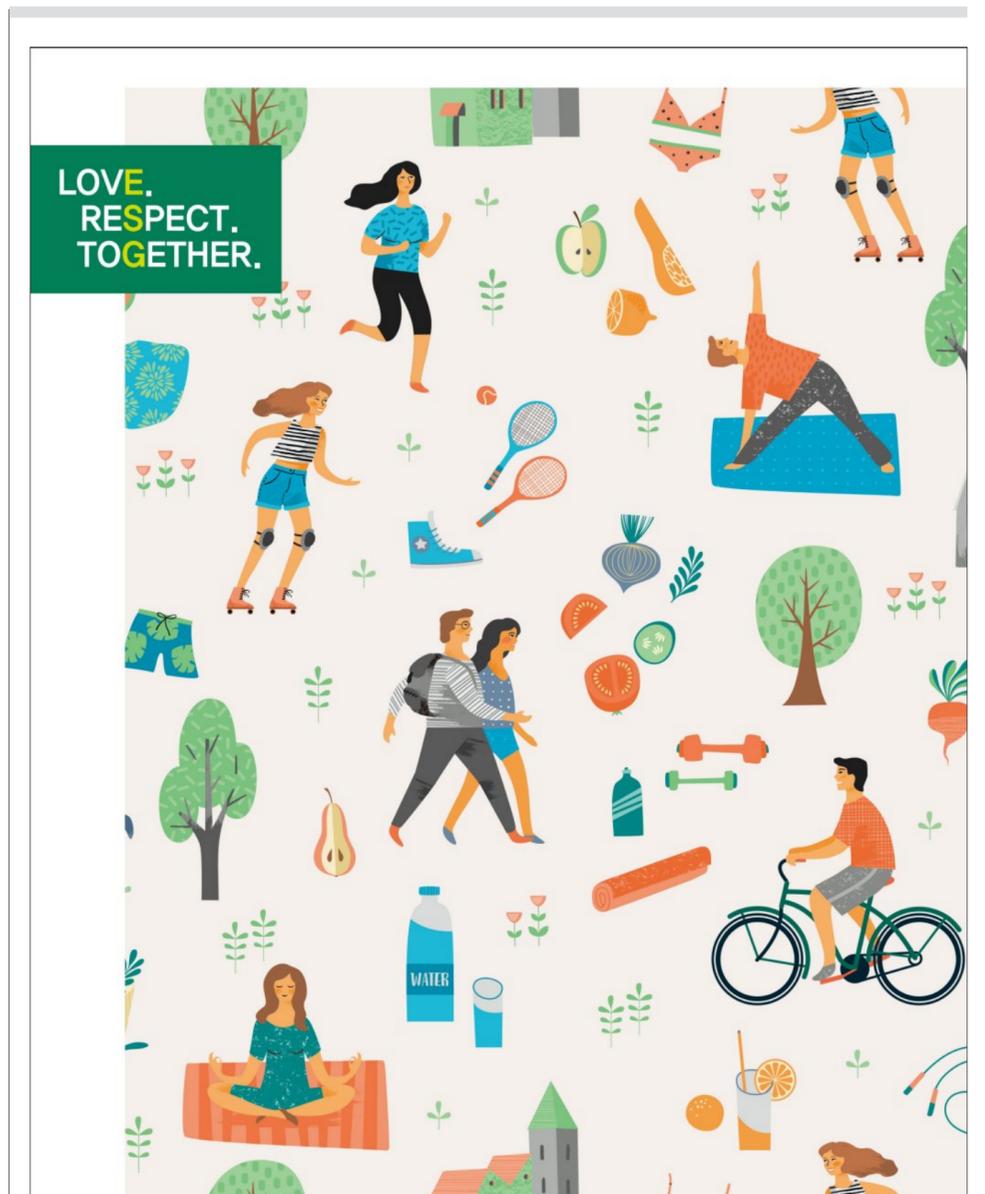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 동안 저지방 제품만 선택했는데 이제는



가든그로브 양로보건센터 건강 세미나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시각이 달라졌다”, “계란 노른자를 먹어도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센터메디컬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시니어들이 최신 의학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지역사회와 시니어 건강 증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됐다. 김민선 기자



##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세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 우리가교회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 드려

2월 22일 주일 오후 4시, 크랜셔와 올림픽 길로 이전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잘 갖춰진 음향시설과 벽 한편을 가득 채운 LED 화면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 찬양인도자의 은혜로운 찬양이 교회 본당에 울려 퍼지며, 장로님 혹은 권사님의 연륜이 느껴지는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 시간.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풍경이다.

그런데, LA의 한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잘 준비된 예배 공간과 시설에, 혹은 잘 갖춰진 예배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살아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기초하여 머리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2월 22일(주일) 오후 4시 우리가교회(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공동목회)가 예배처소를 워셔 애쿼터 빌딩에서, 크랜셔와 올림픽 길로 이전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백승유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되어 박종호 장로 기도, 성경봉독(사무엘상 7:12, 창세기 22:14),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회) 설교, 남상권 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고영문 목사(샘솟는교회) 권면, 최순환 목사(새교회) 격려사, 아룬 목사(현 미 윤군 군중) 축하영상, 백예슬 자매 특송, 김은광 목사 봉헌기도, 김은광 목사 광고, 찬양 우리가교회입니다. 최형규 목사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형규 목사 설교 “에벤에셀에서 여호와 이레로”

최형규 목사는 “에벤에셀에서 여호와 이레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 위해 모였던 ‘미스바’와 ‘날카로운 바위’라는 뜻의 ‘셀’ 사이에 세워졌음을 언급하며, 은혜와 고난이 교차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예배처소로 인도했다고 말했다.

“우리가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분명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평강이 우리가교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최 목사는 설교 중, 마크 러틀랜드(Mark Rutland) 목사가 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 음성을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우리가교회가 되길 축원했다.



우리가교회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마크 러틀랜드라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1위는 ‘사랑합니다(I love you)’. 2위는 ‘당신을 용서합니다(I forgive you)’. 3번째는 ‘저녁이 준비됐다(Supper’s ready)’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랄 때, 학교에서 성적을 잘 못 받았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간에, 엄마의 ‘밥 먹어라’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 우리가 회사에서 힘들고, 세상 가운데 울분이 있고, 표현 못하는 나만의 눈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밥 먹으세요’ 그 한 마디에 내가 사랑 받는 존재구나, 느끼듯이, 미국 사람들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네 상황이 어떻든지 ‘너를 사랑한다’ 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한다’ 하신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 ‘내 품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식사하며 위로 받고 회복하라’ 하신다.”

마지막으로, 최형규 목사는 “우리가교회에 이 세 음성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데에는, “이 장소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며 설교를 마쳤다.

◆남상권 목사 권면,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이루는 교회”설교에 이어서 남상권 목사(남가주 어노인팅교회)는 팀 켈러 목사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준비되었습니다”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인용해 권면했다.

“우리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 믿는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교회를 통해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고영문 목사 격려사 “날마다 축복받고 성장하는 교회”

고영문 목사는, “우리가교회가 날마다 축복받고 성장하여 남가주 지역의 수많은 심령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더 큰 성전으로 이전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최순환 목사 격려사, “개혁운동, 교회를 살린다”

최순환 목사는,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석좌 교수가 분석한 사구교회의 네가지 단계를 언급하며, 그 대안으로 ‘무브먼트’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드류 신학교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사구교회를 4영역으로 구분하셨다. 선교하는 교회(mission), 사역하는 교회(ministry), 관리하는 교회(maintenance), 문제는 이때부터 교회의 생명력이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번째 ‘M’을

소개하는데, 그 ‘M’은 무지암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교회. 관리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상유지에만 몰두하는 교회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곧 박물관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이 미래학자의 발표였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그 전철을 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안이 있어야 한다. 선교로 시작한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가 메인테넌스 교회를 피하고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대안으로 다른 ‘M’을 추가했다. 무브먼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영성운동, 성령운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회의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 저는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개혁교회이다. 개혁운동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개혁 운동이 교회를 살린다. 개혁 교회 참여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려낸다.”

아룬 목사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백예슬 자매가 ‘천번을 불러도’를 특송으로 불렀다.

이날 “우리가교회입니다” 찬양에 이어 최형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 서정희 목사 임직 예배, 남가주 은총교회서 거행

홀사모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이 사역의 씨앗 “사람 세우는 사명 감당할 것”

지난 2026년 2월 22일 오후 1시 30분, 캘리포니아 풀러튼 소재 남가주 은총교회(담임 서정희 목사)에서 서정희 목사의 임직 예배가 은혜 가운데 거행되었다.

미주독립교회연합(대표 류당열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남가주 노회와 주요 인사들과 성도들이 함께해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축하했다.

서정희 목사의 사역은 홀사모를 중심으로 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의 교제에서 시작되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가주 은총교회’의 창립을 극적으로 인도하셨다. 현재 서 목사가 매주 인도하는 온라인 성경공부 모임에는 100



선서하는 서정희 목사. ©교회 측 제공



단체 사진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영적 회복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예배는 류당열 목사의 인도로 김영배 목사(대신 남가주 노회 중경 노회장)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류 목사는 하박국 3장 19절을 본문으로 한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역자의 삶을 강조했다.

설교 이후 이어진 임직식에서는 서약과 안수례, 목사 성의 착의식이 엄숙하게 진

행되었다. 집례를 맡은 류당열 목사는 서정희 목사가 목사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날 순서에는 서정희 목사의 임직과 더불어 선교사 임명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어 최야곱 목사(대신 남가주 노회 노회장)의 권면, 김창현 목사(미주대한신학대학-대학원 5대 총장)와 김영배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남가주 은총교회 찬양팀의 축가로 기쁨을 나누는 예배는 신임 서정희 목사의 첫 축도로 마무리되

었다. 서정희 목사는 임직 인사에서 “앞으로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며 “이 교회가 단순한 지역 교회를 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비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안수 위원으로는 류당열 목사, 김창현 목사, 김영배 목사, 최야곱 목사가 참여하여 서 목사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했다. 조셀 리 기자

## 사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한 회복사역, C-WOW 설립감사예배

오는 4일 오후 6시, 라하브라에 위치한 교회에서

미라클포인트교회(담임 권성연 목사)가 사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회복 사역을 시작한다. 교회는 오는 3월 4일 오후 6시, 캘리포니아 라하브라에 위치한 교회 본당(1540 W La Habra Blvd, La Habra)에서 C-WOW(Cold Water of Widow) 설립감사예배를 드린다.

권성연 목사는 “가장 차가운 물 한 그릇이 가장 따뜻한 기적이 된다”며, “슬픔의 눈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세우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처 입은 이가 치유자가 되어 서로를 보듬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리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흘러가기를 소망한

다”고 전했다.

C-WOW는 ‘Cold Water of Widow’의 약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교회 측은 “단순한 위로 모임을 넘어, 상실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삶의 의미와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영적 돌봄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립감사예배 설교는 감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가 맡는다. 교회는 지역 교계와 성도들을 초청해 C-WOW 사역의 시작을 함께 기도하며 축하할 예정이다.

권 목사는 마지막으로 “살려면,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을 전하며 “그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함께 기적의 산증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714) 822-7721 박현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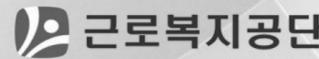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 “라마단은 복음 전할 기회”… 로잔운동, 무슬림과의 관계적 대화 강조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슬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선교학자의 제안이 나왔다.

세계 복음주의 네트워크 로잔운동이 타종교 신자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돕기 위해 기획한 새로운 연재 글에서 선교학자 에밀 샬렘 셰하데(Emil Saleem Shehadeh) 박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예수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끼지만, 라마단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이주와 출산을 변화로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역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무슬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전했다.

셰하데 박사는 논쟁보다 관계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라마단은 이슬람 음력 9번째 달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와 회개, 자선을 강화하는 기간이다. 무슬림에게는 꾸란 낭독과 추가 야간 기도를 통해 신앙을 더욱 깊이 실천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는 영적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존중을 바탕으로 한 복음적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며, 많은 무슬림이 이 시기에 영적 탐구의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슬림 배경 기독교인 4,833명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주요 계기는 공개 설교나 매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개인적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라마단을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장으로 제



런던의 라마단 기간 중의 무슬림 기도 시간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시했다. 실천적 조언으로는 금식 중인 이웃이나 동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음식을 먹지

나 마시는 행동을 삼가는 등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식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등을 공개적으로 묻는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마단 기간 해 질 무렵 금식을 마치는 식사인 이프타르 초대를 받을 경우 예의 있게 수락할 것을 권했다. 그는 이 모임이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독교인 역시 이프타르를 주최하거나 음식 나눔, 복음서 또는 예수의 삶을 다룬 자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도와 절제를 동반한 자발적 금식을 통해 의무적 행위와 은혜 중심의 구원 이해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이슬람을 떠난 응답자의 17%가 행위 중심 구원관에 대한 의문을 신앙 여정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그는 예배소서 2장 8-9절을 인용하며 구원이 은

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 성경적 가르침을 온유하게 설명할 것을 권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매력은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에 있다며 비판보다 예수의 생애와 희생, 구원의 확신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강조했다.

같은 교회들이 라마단을 장벽이 아닌 다리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그는 라마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존중과 친절, 민감성을 갖추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의식과 율법의 짐을 완성하신 의미를 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세에 대한 소망에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기독교 법률단체, EU 1.2억 유로 벌금에 X 항소 지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기독교 법률 옹호 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1억2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X(트위터)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지난해 12월 5일(이하 현지시간) DSA에 따른 투명성과 절차적 의무 위반 혐의로 부과됐으며, X 측은 해당 위반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X는 또한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ADF 인터내셔널은 EU 각국의 디지털 법률에 따라 ‘불법 콘텐츠’의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X는 항소에서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고 편향된 조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는 DSA 벌금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도전 사례다.

DSA는 유럽의 표현 규제가 미국 기업과 시민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특히 미국에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ADF 인터내셔널 유럽 담당 수석 변호사 아디나 포르타루(Adina Portaru)는 “X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표적이 됐다”며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공공 광장과 같은 공간이며 DSA는 그곳의 표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백만 명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X를 이용하고 있다”며 “온라인 서사를 통제하려는 당국이 표현의 자유 플랫폼을 위협으로 간주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권력 집중이 견제되지 않을 경우 EU 전반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표현 통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X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조사, 절차적 오류, DSA 의무에 대한 과도한 해석, 방위권과 적법 절차의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소송이 2022년 제정된 규정의 집행과 벌금 산정,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첫 사법적 도전이라며, 이용자 안전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일한 글로벌 공론장”에 대한 접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경 기자

## “사역을 하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필수적”

미국 사우스이스턴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재직 중인 척 로리스 목사가 최근 ‘처치앤서즈’(Church Answers)에 ‘사역을 하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나는 이 글을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쓴다. 왜냐하면 사역 속에서 좋은 남편이 되는 일에 대해 아직도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라며 “팸과 나는 결혼한 지 거의 35년이 되었고, 결혼에 대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1. 적어도 매주 한 번, 배우자의 마음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보여 달라고 구하라.

나와 비슷하다면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경건하고 희생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도움의 대상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표현이다.

2.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선하심을 목상하라.

두 명의 교회 비서(당사에는 행정 보조를 그렇게 불렀다)가 팸과 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확신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여러 일을 꾸렸다. 당시 나는 그 일에 긴장했었지만

모르지만, 지금은 그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 당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배우자를 연결해 주셨는지 생각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3.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라.

비록 짧은 기도일지라도 매일 함께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특별한 능력과 영적 겸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시작하라.

4. 배우자와 데이트하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정기적으로 아내와 데이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도 있다. 연애하던 시절처럼 아내를 대하라는 뜻이다 — 그녀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목표와 삶에 대해 나누고,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이고, 짐을 나누고, 함께 내일을 꿈꾸던 그때처럼 말이다. 나의 목회 영웅 중 한 분은 “항상 예수님을 향한 연인의 사랑을 품으라”고 말했는데, 내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당신의 연인을 향한 연인의 사랑도 항상 간직하라”는 것이다.

5. 휴무일과 휴가를 지켜라.

솔직히 말해 이것은 내가 가장 쓰기 어



©Nathan Dumlaio/ Unsplash.com

려운 부분인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죄책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 중독적인 성향을 쉽게 드러내며, 아내가 내가 쉬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면서도 계속 일해야 한다고 영적으로 합리화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남아 있어도 아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줄 때 그녀가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녀는 늘 나에게 그렇게 해 주고 있으며, 내가 일을 내려놓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내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다.

6.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사역을 위해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 나는 목회자의 아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라면서 많이 들었고, 피아노를 치고, 여성 선교 모임을 이끌고, 여성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모든 교제 모임을 책임지고,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내의 신

실함의 훌륭한 분이지만, 이 목록에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감당하고 있으며, 내가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다.

7. 적절한 범위에서 배우자를 사역의 세부와 일에 초대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교인 상담, 교회 갈등 처리 등을 얼마나 나눌지는 부부마다 다르게 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 중 많은 이들이 배우자를 사역에 더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회 일정에 대해 배우자가 알도록 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또는 심방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특정 교회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하거나, 지역 사회를 섬길 방법을 함께 꿈꾸거나, 사역의 부담을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도 배우자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미경 기자

**의성군**

#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 의성에서 만들어갑니다.

# 영런던 화이트채플서 기독교 설교자 ‘표현의 자유’ 논란

## 여성 경찰관 대응 화제 인권법 제10조 재조명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런던 동부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게시물은 5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논란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영상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화이트채플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한 기독교 설교자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진행하던 중, 주변에 모인 일부 남성들이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듣기 싫으면 자리를 떠나라”... 표현의 자유 두고 현장 긴장 고조  
영상 속에서 군중은 설교자의 발언이 모욕적이

라고 혐의하며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응한 메트로폴리탄 경찰 소속 여성 경찰관은 “당신들이 듣고 싶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를 듣지 않으려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우리는 여기 산다”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하지만 그는 당신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이 “이곳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당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종교를 전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군중 중 한 명이 설교자가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경찰관은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영상에는 설교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러 게시물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로 소개됐다. 이 장면은 표현 자유와 종교적 감수성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현장의 대응이 영국 인권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권법 제10조 거론... “평화적 설교는 보호받을 권리” 평가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표현의자유연합(Free Speech Union) 토비 영은 해당 경찰

관이 “훈장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관이 상당한 압박 속에서도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토비 영은 “공공장소에서 평화적으로 설교하는 행위는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제10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불쾌감을 느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아무리 강하게 표출되더라도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러한 대응이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 내에서는 거리 설교와 관련해 체포 사례가 이어져 왔다.

◆거리 설교자 체포 사례 잇따라... 공공질서법 적용 논쟁 지속

지난해 11월 브리스톨 시내에서 설교하던 디아 무들리 목사는 이슬람과 성전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밝힌 뒤, 1986년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 따른 종교적 증오 선동 혐의로 에이브러햄시머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에서 한 여성 경찰관이 무슬림 남성 무리의 항의에 맞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YouTube Screenshot

로더럼 타운센터에서는 존 스티이 한 무슬림 여성에게 꾸란이 가정폭력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느니 질문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0년 스윈던 타운센터에서는 손 오살리만이 무함마드와 부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증오 발언

혐의로 체포됐으나, 스윈던 치안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에는 올라울레 일레산미 목사가 잘못된 체포에 대해 2,5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는 사우스게이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슬람 혐오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체포됐으나 이후 석방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그의 성경을 압수하고, 귀가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수 마일 떨어진 곳에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갈등, 공적 공간에서의 법적 적용 주목

CDI는 이번 화이트채플 사건은 영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갈등, 공공질서법 적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고 밝혔다. 공적 공간에서의 종교적 표현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과 법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최승연 기자

#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 기독교 지도자 체포 무함마드 관련 발언 논란 속 ITE법·형법 적용

## 아체주 경찰, 틱톡 영상 문제 삼아 종교적 혐오 표현 혐의 적용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에서 활동하던 한 기독교 지도자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체포됐다고 2월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데디 사푸트라(Dedi Saputra)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게시한 영상 내용이 종교적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다.

사푸트라는 서칼리만탄주 벵카양군 수카마주 마을에서 사역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아내와 함께 교회 물품과 개인 용품을 구입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뒤 연행했으며, 운전할 수 없는 아내는 교회까지 동행해 이동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영상 논란과 아체주 고발... ITE법 및 형법 적용

사푸트라에 대한 체포는 그의 틱톡 계정(@tersadarkan5758)에 게시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말 업로드됐으며 약 19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영상에서 그는 종교 개종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무함마드의 결혼 역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체주 정부와 일부 이슬람 단체들은 해당 발언이 무슬림 공동체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4일 아체 지역 경찰에 공식 고발했다. 아체주 통상정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고발 사실을 알렸고, 지역 이슬람 단체 및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회의 결과 고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발은 아체 이슬람학생연합 지역위원회 대표 모하마드 렌디 페브리안사 명의로 접수됐으며, 아체 이슬람 율법국, 공무원 경찰단, 이슬람 공동체 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발 측은 “해당 콘텐츠가 무슬림의 감정을 해쳤고 지역 사회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푸트라를 인도네시아 전자정보거래법(ITE법)과 형법(KUHAP)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서칼리만탄 지역 경찰서를 거쳐 2월 20일 아체주 경찰 본부로 이송됐으며, 현재 아체 지역 경찰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 자유와 형법 개정 논란... 법률가들 우려 표명

CDI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인도네시아 내 종교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간연구센터(CFIRST)는 경찰이 중립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FIRST의 아리프 미르자자 이사는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된 신형 형법에는 기존의 신성모독

조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형법에서는 신성모독 조항이 제거됐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종교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SNS에서는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국가가 시민의 신앙 표현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또 다른 이용자는 특정 종교에 대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푸트라 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아하바 법률구조연구소의 테니 페브리야누스 나피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체주 특수성 속 사건 진행... 인도네시아 종교 환경 주목

CDI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아체주는 수마트라섬 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체주의 인구 대다수는 무슬림이며, 기독교 인구는 약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국가로 헌법상 여러 종교를 공식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 관련 발언을 둘러싼 형사 사건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종교 표현의 한계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남수단 주바 인근서 목회자 피랍 후 피살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남수단 주바 인근에서 한 교회 목회자가 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보안 당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하이 바라카 오순절교회(Hai Baraka Pentecostal Church) 소속 리노 파스칼레(Lino Pasquale) 목사는 지난 19일 곤도코로 지역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곤도코로는 주바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다. 이후 가족과 교회 관계자들이 수색에 나섰으며, 목사의 시신은 25일 오전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측은 안전을 이유로 익명을 요청했다.

◆“괴한들에 의해 표적 살해”... 교회 측 성명

수단 오순절교회(Sudan Pentecostal Church, SPC) 지도자들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스칼레 목사는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 의해 표적이 되어 살해됐다”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비경한 행위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겼다”며 “이 끔찍하고 의도적인 살인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한 남수단 정부와 모든 보안 당국에 즉각적이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회 측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며, 인류의 법과 남수단 공화국의 법 아래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를 단호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우리 땅과

국민의 평화와 정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회지역사회 애도... “헌신된 복음 사역자”

파스칼레 목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교인들과 가족들은 25일 오후 주바 시쪽 하이 바라카 지역 교회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자 충성된 목자, 복음 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교회 내부에서는 깊은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공동체 전체가 충격과 슬픔 속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아프리카내륙교회(Africa Inland Church, AIC) 고위 지도자인 크리스토퍼 마링(Christopher Maring) 목사가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IC 부총회장 마틴 모가(Martin Mogga)에 따르면, 마링 목사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30분경 주바 구델레(Gudele) 지역 자택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교회 리더 연쇄 피살 우려에 보안 강화 요구  
CDI는 남수단에서 최근 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지역 교계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당국은 범행 동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표적 살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피살 사건이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연 기자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 국가산업단지

- ☑ 광역접근성 우수
-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노태약 퇴임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 청와대와 후보 선호 이전 속 인사청문·임명 절차 최소 1개월 사법개혁 3법 논의와 맞물려 긴장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노태약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한 노태약 대법관의 후임자를 아직 제청하지 않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제청이 이뤄

지더라도 청문과 표결,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 4인 추천 이후 42일 경과... 제청 지연 이례적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 이후 42일이 지났음에도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

성식 부장판사를 1순위, 손봉기 부장판사를 2순위로 검토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는 여성 후보인 김민기 고법판사와 박순영 고법판사를 각각 12순위로 선호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이처럼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선호가 엇갈리면서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변수와 이해충돌 논란

윤성식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지휘하게 되면서 대법관 제청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1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

심을 맡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법원이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가 김민기 고법판사를 선호하면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기 고법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 역시 변수로 거론됐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과 배우자가 동시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은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다룰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과 맞물려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개혁 3법 논의와 맞물린 대법관 공백 장기화 가능성

여권에서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대법관 공백 사례는 있었지만, 제청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차기 대법관 후보 제청 권한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배제한 채 후보를 제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설에 대해 "인사 관련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관 공백 사례... 102일59일 공백 전례

대법관 공백은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다. 마용주 대법관은 전임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2일 만에 임명됐다. 당시 국회 임명동의안은 2024년 12월 가결됐으나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전임자 퇴임 이후 5일간 공백이 발생했다. 신속화·엄살될 대법관 역시 전임 대법관 퇴임 이후 후보 선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59일의 공백을 겪었다.

박용국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30년 국가 미래 전략 설계"

### 기획예산처 공백 해소 과제... 재정 건전성·구조조정·여야 협치 병행 방침

이재명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향후 재정 운용과 국가 전략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을 넘어 대한민국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 재정 컨트롤타워를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초혁신 경제와 민생 회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전임 후보자 낙마 이후

약 두 달간 수장이 공석이었다. 박 후보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조직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예정된 간사를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신설 후

지 역시 장기 국가 전략 가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중장기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중심의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재정은 화수분이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과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와 국회 심사권 존중도 강조했다.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적 과제를 우선 하겠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가 재정 운용과 장기 전략 수립을 동시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용국 기자

## 미국 이란 공격 장기화 가능성... 지상군 투입 여부 최대 변수

미국이 대이란 공격의 중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상군 투입 여부가 전쟁 확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공중해상 작전에 이어 지상군까지 투입될 경우 전선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해낼 것"이라며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국방부 역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작전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가장 강력한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천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1000곳 이상

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지휘통제 시설과 미사일 기지, 해군 전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공중해상 작전에 이어 지상군까지 투입될 경우 전선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인터뷰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장이 달라지면서 실제 파병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이는 단순 공습을 넘어 영토 장악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어 확전 우려가 크다. 이란의 지형 특성과 혁명수비대(IRGC)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단기간 승리를 담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CNN 여

론조사에서 59%가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상군 파병 반대는 60%로 나타났다. 전면 지상전이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전비와 국제 유가 급등, 흐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경제적 충격도 우려된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지상 침공 가능성에 선을 그어 있다. 존 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재 목표가 공중 및 해상 작전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작전이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상군 투입 여부는 전쟁의 범위와 지속 기간을 가늠할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홍은혜 기자

## 미국무부 중동 대피령 'DEPART NOW' 발령... 이란 포함 14개국 여행 정보, 미국 대이란 공격 확대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중동 지역 체류 자국민에게 즉각 출국을 촉구하는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빠르게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무부는 2일(현지 시간) "심각한 안전 위협을 이유로 해당 국가에 있는 미국인들은 이용 가능한 상업 교통수단을 통해 지금 즉시 떠나라(DEPART NOW)"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란을 비롯해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이스라엘(사안지구·가자지구 포함), 요르단, 예멘 등 14개국에 적용됐다.

다만 실제 대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CNN이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UAE와 카타르, 쿠웨이트, 이스라엘, 바레인, 이라크 상공의 항공기 운항이 크게 줄어 사실상 상공이 폐쇄된 상태로 나타났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2일 사이 수천편의 국제선이 취소됐고, 항공기와 승무원들이 각지에 묶이면서 운항 차질이 확산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우회 항로 사용에 따른 연료비 증가와 보험료 상승, 항공권 가격 리바이,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이스라엘(사안지구·가자지구 포함), 요르단, 예멘 등 14개국에 적용됐다.

다만 실제 대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24시간 내 공격 수위를 크게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차 공격으로 이란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 뒤, 미사일 생산 능력과 무인기, 해군 전력을 타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는 아직 그들을 세계 때리기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추가 군사행동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의 중동 대피령과 대이란 공격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항공 운항 차질이 맞물려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은혜 기자

## 이란 공습 확산 속 중동 공항 폐쇄... 두바이 체류 한국인 여행객 귀국 차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동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취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국제공항이 일부 또는 전면 폐쇄되면서 현지 체류 한국인 상당수가 숙소와 공항에 머문 채 대기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귀국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UAE 대사관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온라인 소문 창구를 개설했다. 신혼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계획했던 여행객들도 급히 노선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카타르 등 인접 국가 체류자들 역시 공항 운영 상황과 전력·물 공급 문제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구급약인 활명수  
반고리아의 기공술인 손기정 남승룡 양선수 우송축하  
건조한 체력, 건기를 예방하는 내구력의 근원인 오직 건전한 건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활명수를 꼭 마시십시오

救急胃腸藥  
活命水  
수명환  
牛島男兒의意氣衝天  
孫基順、南昇龍兩選手優勝祝賀  
健康한體力、堅忍不拔하는耐久  
力에根源은 오직健康한胃腸에서  
胚胎된다健康한朝鮮을目標하고  
다 갖치胃腸을健全케하기爲하야  
活命水를  
服用하십시오

地帶五町泉和原城京 房藥和同 房藥和同 房藥和同  
九一七二光新德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동화약품

# 美·이스라엘 대이란 공습 여파...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 코스피 5%대 급락·코스피200 선물 5% 이상 하락... 외국인 4조6000억원 순매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격히 요동쳤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됐고, 3일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코스피200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5.09% 하락한 937.80포인트를 기록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간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정 시간 중단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선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자동으로 발동되며, 단기적인 매매 풀림을 차단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중 매도 사이드카가 세 차례, 매수 사이드카가 한 차례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따라 코스피 변동성이 반복적으로 커

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2시32분께 전 거래일 대비 5.61% 하락한 5893.68까지 밀리며 5900선을 하회했다. 장중 낙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으나, 이후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 폭을 다소 줄였다. 오후 1시2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6% 내린 5940선에서 거래됐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약 4조5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기관의 매매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이자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대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9%대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대형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하락 흐름을 피하

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7% 내린 1174.10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400억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외국인은 2900억원대, 기관은 4000억원대 순매수를 나타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코스피 급락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나래 기자

## 한국 수출 9개월 연속 역대 최대... 반도체 비중 37.6%로 구조 편중 심화

### 2월 수출 674억달러 29% 증가... 반도체 제외 수출은 감소, 정부 '수출 다변화' 추진

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로,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35억5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60% 급증한 251억6000만 달러로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 증가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각각 20.8%, 22.4% 줄었고, 석유화학·철강·일반기계도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다. 석유제품 수출 역시 유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증가분 151억 달러

중 반도체 증가분이 156억 달러에 달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오히려 약 5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출 역시 7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1월 31.1%, 지난해달 37.6%까지 상승했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효과에 가려진 전통 산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재·전력기·기타·화학·방산·원전·자동차·선박·철강 등 8대 전략 품목 중심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산·원전·수주 확대와 소비자재 정책 자금 지원, 통상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 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수출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 서울 한부모 가구 28만 가구 돌파... 주거비 부담·양육 공백·직장 차별 현실

### 지원 수혜율 8.8%로 전국 평균 하회 주거 지원 요구 60%, 양육비 미수령 74.4%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가 28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높은 주거비와 양육 부담, 직장 내 차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정책 사각지대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한부모 가구는 28만9300가구이며, 이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4만4640가구였다. 전체의 약 80%는 여성 한부모였다.

주거비 지원과 공공임대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돌봄 공백과 낮은 임금... 경제적 자립 제약 미성년 자녀를 둔 서울 한부모 378명을 조사한 결과, 비취업 사유로 '자녀 돌봄 공백'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건에 맞는 일자리 부족' 44.9%, '건강 문제' 34.6% 순이었다.

◆지원 수혜율 8.8%... 주거비 부담 두드러져 실질적 지원을 받는 가구는 2만4998 가구로 전체의 8.8%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13.4%보다 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지원 비율도 55.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 한부모 가구는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거비와 생활비 지출이 커 부채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서울 한부모의 60.0%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 지원을 꼽았다. 전국 평균 34.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재단은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성이 생활 곤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취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임금'이 48.0%로 가장 높았고, '일에 집중할 시간 부족' 42.0%, '육체적 피로' 41.0%가 뒤를 이었다. 돌봄 부담과 노동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재단은 특히 미취학·초등 자녀를 둔 한부모와 30대 한부모의 경우 돌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직장 내 차별과 정신건강 부담... 양육비 미수령 74.4% 직장 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은 '편견과 차별의 시선' 49.4%, '휴

가유직 사용 시 부정적 시선' 40.2%, '채용 불이익' 28.0%를 꼽았다. 면접 과정에서 한부모임을 밝힌 뒤 절차가 취소되거나 퇴직을 권고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가족·친구를 만남' 43.9%, '혼자 참음' 43.1%로 나타났으며, 전문 치료를 이용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상담·치료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93.5%는 우울·스트레스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사별을 제외한 미혼·이혼 한부모 중 74.4%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나래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질타... 금감원, 농지담보대출 전수 점검 착수

### 경자유전 원칙 재강조... 농지 전수조사와 금융권 대출 관리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금융권 점검을 병행해 농지 투기 차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4일 국무회의에서 한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전

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고발 조치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수도권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 지역은 조사 강도를 높인다. 금융감독원 역시 농지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을 대상으로 대출이 영농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담보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살핀다. 용도 외 사용이나 부당대출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담보대출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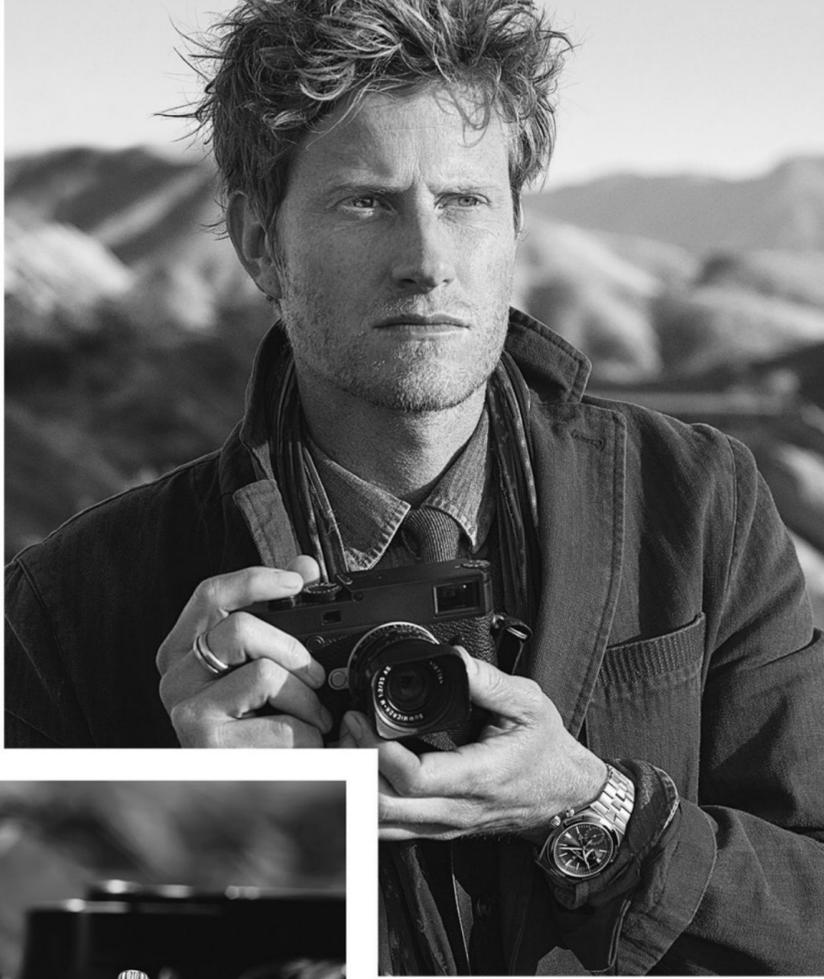
## 블랙핑크 '데드라인' 외신 극찬... 롤링스톤·빌보드 호평, 첫날 146만 장 기록

블랙핑크가 3년5개월 만에 발표한 미니 3집 '데드라인(DEADLINE)'을 두고 해외 주요 매체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직후 글로벌 차트와 음악 전문 매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롤링스톤은 "블랙핑크가 최고의 전성기로 돌아왔다"고 평가하며 네 멤버가 함께할 때 발휘되는 에너지와 팀워크를 강조했다. 전 트랙에 걸친 장르 확장성도 주목했다. EDM 기반의 '점프(JUMP)', 타이틀곡 '고(GO)', 뉴웨이브 감성의 '챔피언(Champion)' 등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한

점점 높아 갔다. 빌보드는 타이틀곡 '고'에 대해 강렬한 랩과 보컬, 인상적인 비트 드럼이 조화를 이룬 곡이라며 앨범을 대표하는 트랙으로 꼽았다. 후렴구는 팬들이 함께 외칠 수 있는 상징적인 구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업적 성과도 두드러졌다. '데드라인'은 K팝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고 첫날 판매량인 146만 장을 기록했다. 38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중국 QQ뮤직에서도 수록곡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나래 기자



블랙핑크.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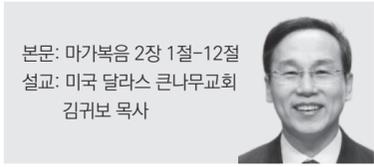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ONE OF NOT MANY.

# 믿음의 콜라보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12절  
설교: 미국 달라스 크나우교회  
김귀보 목사

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막1:45)  
그렇게 오랫동안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다. 그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포위되었다.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 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막2:1-2)

### ◆기적보다 먼저 선포된 말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대부분은 병자이거나 구경꾼들이었다.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먼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병을 고치기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곧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복음 선포였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사람에게서는 영혼만 중요할까? 그렇다면 육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은가? 육신의 필요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둘 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필요를 대신할 수 없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단순한 순서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문제다. 때로는 하기와도 굶주린 사람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다. 반대로 어떤 때에는 육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균형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후, 해가 저물었을 때 사람들의 배고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재미있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본질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다. 기독교는 이 땅에 유포되어야 건설하는 운동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고 희생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목적도 아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다.

### ◆막힌 길 앞에서 드러난 믿음

예수님이 집 안에서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흐름을 깨는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지붕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흙과 부스러기가 사

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잠시 후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이 집 안으로 내려왔다. 알고 보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았다. 지붕을 뜯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선택했다. 그 순간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고, 말썽한 집을 망가뜨리며 집 주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마디는 상황을 꾸짖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모든 혼란을 단번에 잠재우는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담겨 있다.

첫째,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 왜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까? 왜 사람들로 가득 찬 집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지붕까지 뜯어서 내렸을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막1:40)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셨다면,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 믿음은 집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붕을 뜯는 행동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믿음은 사람들의 비난을 넘었고, 지붕을 수리해야 하는 비용을 넘었으며, 들것을 옮기는 수고와 마음 속에 올라오는 불신앙까지도 넘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에 반응하신 것이다.

### ◆따뜻한 선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충돌

둘째,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라고 부르셨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6절) 보통이라면 죄인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 여기서 작은 자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테크논(Teknon)으로, 아이, 자손, 자녀를 의미한다. 어린 유아만을 가리키는 <파이디온>과 달리,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아이처럼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인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의 대상인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다.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 “내 아들이 안심하라. 네 죄가 용서 되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며 정죄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병든 자, 목자 없는 양, 그리고 내 자녀라고 부르셨다.

### ◆죄를 사하는 권세가 증명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첫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잠16:2)  
둘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과격적이어서

한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있었다.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2:6-7)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신해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었다. 이들의 판단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을 동시에 가진 존재들이었다. 자신들의 체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나타나면 감찰하고, 고발하고, 결국 제거했다.

바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고, 본격적인 감시와 검중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그들의 귀에 정확히 걸렸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2:7) 서기관들은 즉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신성 모독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들은 이 판단을 자신들을 보낸 이들에게 보고 할 것이다. 이 순간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뿐 아니라, 생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다.

그러나 이 갈등과 위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왜 왔는지도 알고 계셨다. 서기관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중풍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굳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시오로 갈등을 유발하셨다.

사실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막2:8-9)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첫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잠16:2)

둘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과격적이어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동일하게 했을 생각이다.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통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신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고 말하는 것이 쉬운가?

말로만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분명히 보여 주셨다.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막2:10-11)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다. 이 사실을 믿었던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오늘 이 장면에서 그들은 믿음의 콜라보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사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매주 설교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병자들을 위해 치유를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려 한다. “16.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마8:16-17)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뿐 아니라 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려 한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할부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 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3·1운동, 한민족의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2)

## 5. 3.1운동의 두가지 중요한 문서: 기미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러면 3.1운동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3.1운동이 만들어 낸 두가지 위대한 문서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해서 이 선언서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은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며, 우리 국민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독립과 자유, 이것은 서구 민주국가가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독립은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립주권국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이 주신 자유가 있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 할 방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독립국인데,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이 문서는 1919년 4월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승만은 4월 7일 미국에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미국의 제도 및 동일한 정신 아래 기독교독립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것을 상해의 현순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4월 10일에 임시헌장 초안을 만들어졌고, 이것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의 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장은 첫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주장한다. 헌장 서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밝히고 있고, 10개 조항 가운데 7항에 대한민국은 신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포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정신에 근거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따른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치제도를 따

라 민주정부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 곧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3조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 빈부, 귀천의 계급이 없이 모두 평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반과 관리가 있는 조선과 다른 한편 노동자와 농민만 권리가 있는 공산주의와도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와도 조선인민공화국과도 다릅니다. 2) 다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조선왕조는 왕이 3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3) 또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소유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자유는 사적 재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두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의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국제공산당(코민테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에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은 그냥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에 속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독립과 자유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내린 결단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단지 일본에서 독립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같이 자유세계에 속해서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경단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 6. 3.1운동과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이들은 소련과 손을 잡고 한반도에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미국은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유와 독립, 이것은 1919년 3.1운동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76년 미



박명수(서울신대 명예교수,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교회갱신위원장)

국 독립선언서, 1917년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1943년 미국과 영국의 카이로선언은 다같은 국제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국에 대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바로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45년 12월에 열린 모스크바 외상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소련의 계략에 넘어가서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 민주주의라고만 했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주주의인지 말하지 않았습니. 동시에 독립만 말했지 자유는 말하지 않았습니. 이것은 3.1운동의 정신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승만과 기독교인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투쟁의 결과는 1947년 가을 모스크바협약을 폐기하고,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겼습니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한반도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했고, 이것을 위해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유와 독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치루어졌고, 5월 30일 제헌국회가 소집되었으며,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세워진 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1 정신이 구현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저는 1919년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일부는 이 결단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북한은 3.1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김일성의 빨치산 운동에 기초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

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7. 3.1운동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저는 마지막으로 1919년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몇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민족은 1919년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세계질서에 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유교는 중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로, 일부 세력은 일본에 의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와 손을 잡고,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을 중심으로하는 대륙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해양세력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세력에 속하면 그것은 봉건주의와 공산주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양세력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가 이미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919년 이길을 결정했고,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려는 어떤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둘째, 3.1운동이 만든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계급이 부정되고, 삼권이 분립되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양반의 편도 아니지만 노동자와 농민의 편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농민의 권익만 보호되

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도, 소유의 자유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운동입니다. 당시 조선 천주에게의 모든 것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일본이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당시 한민족이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알려 준 것이 선교사들이었고, 상해 한인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국내에서 조지를 총동원해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없이는 3.1운동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 8. 기독교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한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정교분리는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모방하면서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릅니다. 가이사의 것은 육체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교회는 영혼의 삶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1919년 일본은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는 비상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사명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는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해방 직후 공산당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공산화하려고 했을 때, 북한의 교회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자유당입니다. 해방 이후 남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할 때 교회는 여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 기독교는 한국기독교국전도대를 만들어서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심지어

1970년대 유신 때 한국 기독교는 독재와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교회가 단지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정치에 무관심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도 무너집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3.1운동 당시 이 일을 위대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 9.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 5: 1).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우리가 자유세계와 연대할 때 이것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세계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자유를 빼앗기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의식주를 다 제공해 준다는 미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는 세력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자유세계에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몇푼 던져주는 빵을 먹으며 하나씩 하나씩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려면 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3.1운동은 위대한 자유운동입니다. 3.1운동은 한국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행한 위대한 행동입니다. 이제 2026년 3.1절에 다시금 행동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박명수 교수가 3.1절 제107주년이었던 1일, 금란교회에서 열린 '국가를 위한 3.1절 금식기도성회'에서 한 특강의 전문입니다.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일: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비타이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범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 정교분리는 종교를 보호하는 방패이지, 통제하는 칼이 아니다

연취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



1. (최혁신 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안의 위험성: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적 전도

헌법 제20조 제2항이 선언하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은 국가가 종교에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

헌법 제20조 제2항이 선언하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은 국가가 종교에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 원칙을 오히려 ‘국가가 종교단체의 활동을 심판하고 제재하는 근거 규범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분리는 종교를 공격 영역에서 배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존재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토대여야 합니다.

2. 역사적 교훈: 왜곡된 정교분리는 늘 탄압의 수단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정교분리는 종종 권력자들에 의해 종교세력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가 강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치활동 개입을 이유로 법인 취소’를 명시한 것은, 과거의 인권 침해적 역사를 법률적 수단으로 부활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표현은 헌법적 권리다

학계와 판례는 정교분리가 종교인의 정치 참여나 사회적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교분리가 종교의 공격 발언을 금지하는 침묵

규범이 아니라, 종교가 국가권력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원칙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종교는 단순한 내면적 신념에 머물지 않고 교육, 의료, 복지 등 세속적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을 발휘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신앙에 기초하여 사회·적윤리적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정교분리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정면 위반하는 것입니다.

4. 행정 권력에 의한 ‘종교 심판’은 헌법 질서의 파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큰 문제점은 고도의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정교분리 위반 여부’를 행정부 산하 주무관청이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

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정교분리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행위의 목적과 효과를 따지며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민법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적 판단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는 바, 국가가 종교의 중립적 보호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군림하게 하여, 정교분리 원칙이 의도했던 국가 권력에 대한 자기절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교회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지켜 내야 한다

개정안은 정교분리 위반을 근거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법인격을 박탈하

고 그 자산까지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죄 행위나 법인격 남용은 분명 엄정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 방식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관리해나가기 위한 도구도 아니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방패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이므로, 한국 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책임 있는 공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방패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시도이므로, 한국 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책임 있는 공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성경 번역 역사와 수난(受難)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는 규정을 결의 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962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모든 신자가 자국어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가 자국어 성경을 읽게 된 것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성경 번역을 엄금했지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는 움직임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John Wycliffe(1320?-1384)와 그의 제자들이 1380년대 초반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든 신자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는 1408년 옥스포드 헌장(Constitutions of Oxford)를 통해, 교회의 허가 없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읽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화형에 처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1415년 독일 남부의 Konstanz 공의회에서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어, 그의 사후 44년이 되는 1428년, 교황 Martinus 5세의 명에 따라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들을 꺼내어 불태우고, 그 재를 강에 뿌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묘를 파헤치고, 시체를 꺼내 목을 치는 벌을 받은 셈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 했다는 이유로 또 화형을 당한 사람은 역시 영국사람 William Tyndale (1494-1536)입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영어 성경을 번역했으나, 그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1536년 벨기에에서 체포되어 화형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교회 개혁의 봉화를 올린 Martin Luther는 로마 교회의 파문을 받고, Marburg 성에 도피해 있는 동안,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1522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후에 독일어 표준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 왕 James 1세는 세력이 팽대되어 가던 청교도들을 달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하여금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여, 1611년 유명한 ‘King James Version’이 햇빛을 보았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이나 영어로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선각자들이 고귀한 피를 흘린 댓가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살아갑시다. 살림.

는 규정을 결의 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962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모든 신자가 자국어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신자가 자국어 성경을 읽게 된 것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성경 번역을 엄금했지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는 움직임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John Wycliffe(1320?-1384)와 그의 제자들이 1380년대 초반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든 신자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교회는 1408년 옥스포드 헌장(Constitutions of Oxford)를 통해, 교회의 허가 없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읽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화형에 처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1415년 독일 남부의 Konstanz 공의회에서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어, 그의 사후 44년이 되는 1428년, 교황 Martinus 5세의 명에 따라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들을 꺼내어 불태우고, 그 재를 강에 뿌렸습니다.

## 우월주의의 경고, 힘의 시대를 넘어서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펍백



책을 다문화 가정 차별 속에서 그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

문학과 영화도 이를 고발해왔다. 루마니아 출신 작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의 소설 25시는 전쟁 속에서 한 개인이 민족과 이념의 틀에 갇혀 짓밟히는 과정을 그렸다.

최근 작품인 One Battle After Another는 상류 사회의 특권 의식과 백인 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구조화된 우월감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보여준다. 한국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남아” 역시 신분과 권력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를 통해, 우월감이 아니라 공감의 사회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월주의에 대한 공통의 해소책은 무엇인가? 첫째, 철학과 인문학의 회복이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려는 윤리적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 이전에 존엄을 가르쳐야 한다. 인성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다. 타자를 낮추고 배제하는 사고방식이다.

역사는 그 위험을 반복해 증명했다. 인종 우월주의는 노예무역과 식민지 지배를 낳았다. 민족 우월주의는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종교 우월주의는 십자군 전쟁과 종파 갈등을 낳았다. 계급 우월주의는 봉건제의 신분 차별을 고착화했다. 오늘날에도 반이민 정책, 난민 배

척, 다문화 가정 차별 속에서 그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

문학과 영화도 이를 고발해왔다. 루마니아 출신 작가 콘스탄틴 비르질 게오르규의 소설 25시는 전쟁 속에서 한 개인이 민족과 이념의 틀에 갇혀 짓밟히는 과정을 그렸다.

최근 작품인 One Battle After Another는 상류 사회의 특권 의식과 백인 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구조화된 우월감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보여준다. 한국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남아” 역시 신분과 권력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를 통해, 우월감이 아니라 공감의 사회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월주의에 대한 공통의 해소책은 무엇인가? 첫째, 철학과 인문학의 회복이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려는 윤리적 훈련이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 이전에 존엄을 가르쳐야 한다. 인성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다. 타자를 낮추고 배제하는 사고방식이다.

역사는 그 위험을 반복해 증명했다. 인종 우월주의는 노예무역과 식민지 지배를 낳았다. 민족 우월주의는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종교 우월주의는 십자군 전쟁과 종파 갈등을 낳았다. 계급 우월주의는 봉건제의 신분 차별을 고착화했다. 오늘날에도 반이민 정책, 난민 배

사기 아니라, 상처 입은 타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사회의 감수성은 높아진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월주의자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극진히 돌보아 주고 살려낸 자는 유대인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다.

위인과 석학들은 이미 이렇게 경고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눈에는 눈”의 논리가 결국 세상을 망게 만든다고 했다. 보복의 연쇄는 모두를 장님으로 만든다는 경고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만을 낳는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모든 우월주의를 무너뜨리는 원칙이다. 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의 서사를 새로 써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가와 종교, 인종을 넘어선 공동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월주의를 경계하라는 경고는 도덕 교과서의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와 직결된 현실의 문제다. 힘이 아니라 존엄을, 자배가 아니라 공존을 선택할 때 미래는 열린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스스로의 ‘우월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희망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침묵 수업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남긴 말이다.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일들이 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을 통해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또한 말을 통해 설득하고, 사람을 얻고, 과업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법은 꾸준히 배우야 합니다.

누구나 말을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임입니다. 잠언의 많은 가르침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올바르게, 신중하게,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저는 늘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소통에 관한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지 않으면 말의 중요성을 잊고 무심코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며, 예술입니다. 약기 연주자가 반복해서 연습하듯, 말하는 법도 반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배우야 할 것이 침묵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과 소통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세미나는 많지만,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는 세미나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 이상으로 침묵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라게 여기더라”(막 15:4-5).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마 7:28-29).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에서 무게와 고요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침묵에서 신중함과 분별의 지혜를 배웁니다.

세계 큰 울림을 준 말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려거든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필요 없는 말, 삼가야 할 말을 반복한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지의 말이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내게 해가 되지 않았다.” 영성가들은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헌인들은 침묵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제가 배운 침묵의 지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내면의 불꽃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 후에는 공허함을 경험하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 내면의 불꽃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내면의 불꽃은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침묵은 내면의 에너지를 지

키고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 침묵은 경청의 지혜입니다. 말하는 동안 우리의 귀는 닫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경청은 관심과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며 배운 좋은 교훈을 기록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순간, 뇌는 각성합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기록할 때 그 내용은 더 깊이 뇌에 새겨집니다. 또한 기록한 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내면화되고, 삶이 됩니다. 경청은 지혜를 얻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셋째, 침묵은 고요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정적(靜寂)에 이르는 길입니다. 정적은 고요하여 맑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시작할 때 마음의 소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소음을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소음이 점점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 집니다. 고요할 때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깊이 깨닫습니다. 고요는 통찰을 열어 줍니다. 고요할 때 영감이 임

하고, 고요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요할 때 사람의 미소 속에 숨은 슬픔을 보게 됩니다. 말 뒤에 감춰진 숨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고요를 가꾸는 길은 침묵입니다.

넷째, 침묵은 소통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음악의 쉼표와 같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운 적절한 쉼표에 있습니다. 쉼표가 음악을 살리듯, 침묵은 대화를 살립니다. 침묵은 동양화의 여백과 같습니다. 적절한 여백이 깊이를 더하듯, 침묵은 말의 깊이를 더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할 줄 알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나무”(잠 25:11).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려 알맞은 단어와 ‘꼭 알맞은 단어의 차이는 진짜로 엄청난이다. 이 차이는 정말로 번딧불(lightning bug)과 번개(lightning)의 차이와 같다.”

침묵 수업을 계속 받으십시오. 침묵을 배우수록 말은 깊어지고, 소통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침묵 수업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상처를 덮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

이진호 목사  
시애틀 침사교회



우리는 저마다 가슴속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흉터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타인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기도 합니다. 진정한 영혼의 회복은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성취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부여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때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연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로드리게스 신부는 박해받는 일본 신도들을 돕기 위해 일본에 잠입하지만, 결국 체포

되고 처참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배교를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는데, 그러나 신앙을 버려야만 고통받는 신도들을 살릴 수 있겠다는 협박 앞에, 그는 결국 배교의 의지로 성경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사제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순간,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밭아도 좋다. 나는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세상에 왔고, 밟히기 위해 이 그림을 존재하게 했다.” 배교라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실패의 상처 속에서, 로드리게스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이미 안고 계셨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대면합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신부로서의 자부심이 깨진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망가진 영혼을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는 감춘다고 나아지지 않고, 완벽해지려 애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깊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 넓으며,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강합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파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비난과 정죄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 교회의 감정가는 얼마일까

이민규 목사  
웨드렐웨이제일장로교회



오래된 물건을 감정하는 TV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진품명품’, 미국에서는 ‘Antiques Roadshow’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정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보기보다 매우 높은 감정가가 나올 때 모두 놀라는 장면이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를 더해 인기몰이를 했었고 지금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가는 ‘진품명품’의 경우 11세기 경의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고려청자)’으로 한화 25억 원이었고, 미국에서는 1914년 제작된 Patek Philippe 회중시계였는데 미화 2백만 달러였습니다. 만약 그 감정사들이 교회를 감정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교회를 최초로 감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감정가는 하나님의 피값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요, 하나님께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자국이 묻은 옷이 있다면 그건 아

마 천문학적 가격표가 붙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정도가 아니라, 그 피 자체요, 그 목숨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걸 알았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바울의 고전 5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이며, 그 성도가 부름받아 지역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조직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셨고, 사도는 조직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고, 부활 후 직분자를 임명하여 교회를 세우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파송받아 임명받은 조직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의 가치로 대하고 계신가요?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동일한 신앙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739-8119  
광고문의 010-2700-3297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02-739-8119 또는 press@cdaily.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기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제7회 D.F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21명 선발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유자녀 학업 지원 확대

제7회 D.F(도너페밀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기증인의 유자녀 21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D.F장학회는 장기기증인과 유가족 예우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발족했다. 생명을 살린 유가족, 특히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유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는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 등 총 21명이 선발돼 역대 최대 규모로 장학금이 전달됐다.

국내 장기기증 대기 환자의 현실도 함께 전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3,0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8.5명에 해당한다. 2020년 하루 평균 6명이던 수치와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40% 증가한 셈이다. 장기기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 해마다 2-3천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뇌사 장기기증인은 마지막 순간 타인의 생명을 살린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40~50대 뇌사 장기기증인 비율 높아...학업 지원 필요한 유자녀 증가

최근 5년간 뇌사 장기기증인의 연령 분포도 공개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뇌사 장기기증자 2,205명의 평균 연령은 49.1세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의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한창 자녀의 학업을 지원해야 하는 시기에 세상을 떠난 기증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선택 뒤에는 유가족의 상실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가정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따라 D.F장학회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7회 D.F(도너페밀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학기인 유자녀가 부모의 선택을 자긍심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제7회 D.F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은 이러한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의료인, 교사, 예술가 등 다양한 꿈을 품고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의 생명을 살린 유자녀... 장학생들의 다짐 이어져"

이날 대표 장학생으로 소감을 전한 정지산 씨는 2010년 뇌사 장기기증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그는 간호사를 목표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 씨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며 "오늘 받은 장학금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되돌아온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기증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제7회 D.F장학회 장학생이자 뇌사 장기기증인 김지호 씨는 아버지를 그리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그는 간호사를 목표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장학금이 각자의 꿈을 구체화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박영진 씨의 아들 박원근 군은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는 "세상에 희망을 전한 아버지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교육학과 진학 계획을 밝혔다. 2020년 건설현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김철수 씨의 아들 김서진 군도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김 군은 "아버지의 심장이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음악가를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장학생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생명의 가치를 살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7회 D.F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은 단순한 지원 행사를 넘어, 기증인 유자녀가 부모의 선택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응원하는 자리였다.

◆교계·후원자·도너페밀리 참여... 생명의 가치 확산 기대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교계와 시민사회의 후원이 더해져 마련됐다. 여러 교회와 단체, 기업 후원팀, 팬클럽, 온라인 기부자 등이 뜻을 모았다. 특히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17명으로 구성된 도너페밀리가 직접 장학금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유재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생명을 살린 영웅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고귀한 선택을 자긍심으로 삼아 성장하고 있어 대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기기증인 유자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시각발달성인 자립생활지원 22개 프로그램 본격 가동

### 2026년 자립생활지원 연중 운영... PCP 기반 훈련·AIoT 체험형 도입으로 통합 자립지원 모델 구축

설리번학습지원센터(센터장 노형지)가 2026년 시각발달성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연중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각발달성인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 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센터 측은 이번 시각발달성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단계별 자립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기능 수준과 개별 욕구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재설계해, 돌봄을 넘어 '주체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각발달성인 자립생활지원 전면 재구조화... 돌봄 중심 '늘봄교실' 신설

2026년 자립생활지원 사업에서는 기존 운영 체계를 전면 재구조화하며 세 가지 핵심 변화를 반영했다. 먼저 돌봄 중심의 '늘봄교실'을 신설해 중증 시각발달성인

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PCP(사람중심계획) 기반 일상생활 훈련을 전 교실에 도입해, 이용자 개인의 목표와 선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훈련을 넘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지원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중 회기를 기존 24회기에서 28회기로 확대해 지속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 교실형 그룹수업과 함께 개인별 목표에 따른 1:1 맞춤형, 개별 상담, 개인에스제 기반 활동 연계를 병행해 실질적 변화가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AIoT 기반 자립생활 체험형 구축... 실습 중심 훈련 강화

설리번은 실로암시각장애인 종로분관 리모델링을 통해 다수의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고, 실제 가정집과 유사한 구조의 AIoT 기반 자립생활 체험실을 구축했다. 체험실은 가사활동, 위생관리, 안전관리,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 전반을 실습



AI활용교육을 하는 모습.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중심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집단 활동뿐 아니라 1:1 자립훈련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개인의 숙련도에 맞춘 반복 및 심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센터 측은 이러한 환경이 시각발달성인 자립생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정보접근성·사회참여 강화... 통합 자립지원 모델로 확장

이번 2026년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교실 중심 훈련을 넘어 돌봄·자립·평생교육·개발·맞춤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자립지원 모델로 재구조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 성인의 자립 영역 중 '정보 접근성'과 '사회참여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에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정보접근성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훈련, 자기결정권 기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특성에 따른 1:1 디지털 활용 훈련과 사회적 상황 대응 연습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발달성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형지 센터장은 "시각발달성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연중 프로그램은 돌봄에서 시작해 자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구조를 갖춘 실질적 지원 모델로, 집단 활동과 1:1 맞춤지원을 병행해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 2026 각당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식 개최...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특강

각당복지재단이 운영하는 '2026 각당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식'이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각당 신관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식은 전문자립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인 '각당 아카데미'의 새 학기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교육생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당 아카데미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해 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체계적인 강의와 실천 중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자립봉사자를 길러 왔으며, 2026 봄학기 역시 이러한 취지 속에서 진행된다.

개강 특강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정진홍 명예교수가 맡는다. 정 교수는 '살아오면서 생각이 난 것들'을 주제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나눌 예정이다. 국내 죽음학 분야의 석학으로 알려진 그는 오랜 연구와 사회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죽음 이

해와 삶의 의미를 짚어 왔다.

이번 특강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되며, 죽음을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당복지재단은 이번 강연이 이룬을 넘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사유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 각당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식은 기존 교육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각당복지재단 교육팀을 통해 가능하다.

각당복지재단은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삶과 공동체를 세우는 전문자립봉사자 양성에 계속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엔코

대표 최훈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욕실자재 전문회사  
**이견비엔코(주)**

###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몸만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러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브(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항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복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급급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력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검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남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율곡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길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충남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반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께서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토익등 대용량 단어장



## 다윗에게 배우는 '하나님께 묻는 삶'

### 신간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속도를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서, 먼저 멈추어 "여호와께 묻는"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책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사무엘상 22-25장과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광야의 도피자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탐구한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간, 역울함과 배신, 분노와 유혹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묻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그의 태도는 단순한 신앙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었다.

저자는 "여호와께 묻는다"는 표현을 단순한 기도 행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할 신앙적 태도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는 것이다. 시편이 말하는 '바라봄', '우러러봄', '기다림'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행위다.

다윗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의로우심을 붙들며 미래를 확신했다. 저자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연결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열여섯 가지 미래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이 책은 다윗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해서 흔들리고 무너질 뻔한 그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나발 사건에서 분노에 휩싸여 복수의 칼을 들러 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실체와 닮아 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다윗을 불드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저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 완벽함의 길이 아니라, 때 순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상황은 그때로여도, 하나님께 맡기며 한 고비를 넘는 과정 속에서 신자는 성숙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곧 성화의 여정이라는 설명이다.

다윗은 역울함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판단하시기를 구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날 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현재의 삶 속에서 붙들었다.

저자는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부당한 상황을 만날 때 누구에게 묻는가. 분노와 자기 확신에 기대어 행동하는가,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께 상황을 연결하며 기다리는가?"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는 단순한 성경 해설서가 아니다. 사무엘상 본문과 시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다윗의 외적 사건과 내면의 고백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 고난과 역울함을 지내고 있는 이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특히 유익하다.

이 책은 말한다. 인생의 모든 순간, 여호와께 먼저 묻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라고, 속도와 결단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멈추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의 본질을 독자를 초대한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통성과 침묵 사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질문이 있다. 통성기도가 더 성경적인가, 아니면 침묵기도가 더 깊은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와 고요히 머무는 기도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책 《통성과 침묵 사이》가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의 기도 여정 속 고민에서 출발한다.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여정의 두 축으로 이해한다. 나비가 날기 위해 두 날개가 모두 필요하듯, 기도의 여정에서도 두 길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를 단순한 기도 기술이나 영적 스타일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 핵심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누리는 데 있다. 통성기도든 침묵기도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연합과 교제에 있다.

책은 사막 교부들의 금언을 인용하며 독자에게 묻는다. "수도 생활에서 해야 할 최선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통성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교제를 지향하는 기도다. 그러나 그 목표를 잇을 때, 통성기도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소리를 쉰다 울려 하늘에 닿으려는 '소리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책의 저자는 통성기도가 연합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한 번의 깊은 연합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줄기와 같다. 땅속 열매를 끌어올리는 한 줄기처럼, 연합의 기도는 신앙 여정의 모든 열매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이

다.

침묵기도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여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 고요한 터전에서 기도자는 안식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다. 저자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표현한다.

침묵 속에서 생각의 소음이 멈출 때, 누수되던 에너지가 멈추고 충만함이 차오른다. 그 충만함은 개인의 내적 성화로 이어지고, 결국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간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메시지다.

책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영적 여정이 있음을 강조한다. 기질과 상황,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르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기도 유형을 찾는 것은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고 말한다.

《통성과 침묵 사이》는 학문적 연구에 근거하면서도 개인과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공동체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안내서다. 최승연 기자

###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예수님께서 삶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히 1:3, 골 1:15).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롬 8:29-30)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표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된 독특한 '존재론적 특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형상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요셉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다'



복음 설교는 한 사람이 다른 한 무리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 따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회중과 설교자는 함께 그 작품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 때문에 책으로 출간된 설교들은 언제나 차선(次善)입니다. 어떤 설교를 실제로 행하면,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는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이 연금술은 예측할 수도 없고 억지로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교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설교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중에게 얹어 있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말씀을 들으라는 부름을 받은'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회중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나가 교회에 몇 마디를 적어 보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순간 제 구에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써 놓은 살아 있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플레밍 러틀리지 '말씀이 일하시니'



기독교 예배 형성의 긴 역사적 발전 과정을 모두 고찰하는 것은 교회사 전체를 예배신학의 관점으로 고찰하는 방대한 영역이다. 초대교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예배 구성과 발전, 초대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개혁의 예배 형성과 실천, 그리고 근대 이후 여러 지역과 교단에서 발전한 예배 구성의 복잡한 형성 과정은 예배의 역사적 접근에서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기독교 예배의 역사 또는 기독교 예배학 개론 등의 저술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회사나 시대 구분에 따라 형성된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예배 형성의 역사적 접근은 개신교에서는 제임스 화이트로부터 발전해 왔다. 기독교 예배 형성의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최근 1960년대 초반의 예배갱신운동(Liturgical Renewal Movement)은 다양한 방식의 예배 형성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주종훈 '기독교 예배의 변화'

## 대한민국 독립 수준 61점... 문화 높고 외교 낮아, 삼일절 여론조사 결과

### '강대국 눈치보기' 최대 요인... 정치 통합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독립 수준이 100점 만점에 평균 61점으로 조사됐다.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외교 분야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격월간지 '사상계'가 삼일절을 맞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 전 분야를 종합한 총체적 독립도는 6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과 의존의 과도

기를 벗어나 자립 단계 초입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문화 62.9점이 가장 높았고, 외교 46.1점이 가장 낮았다. 정치 55.6점, 경제 53.7점, 안보 51.8점으로 집계됐다. 문화적 자립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나 외교적 독립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4점으로 가장 낮았고, 50대는 65.8



격월간지 사상계 2026년 1-2월호 표지. ©사상계

점으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외교 분야 자주적 평가 비율은 11.5%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57.1점, 여성 46.2점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안보 분야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

독립 수준을 60점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강대국 사 눈치보기(66.2%)를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국익보다 당파싸움, 남북 분단, 안보 독립 문제, 자원에너지 의존 등이 뒤를 이었다.

진정한 독립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는 정치 통합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사상계는 이번 조사가 외부 압력뿐 아니라 내부 역량 문제를 함께 고려해 독립을 평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연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진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경교 (구세군 진주교회)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훈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 Deep 바이블 남 유다 20명의 왕들

(왕상 15장-왕하 25장, 역대하 10장-36장)

왕국 분열 후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 다윗 가문의 유다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이나 오래 지속되어 그 후 총 336년 동안 왕권이 계승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권을 계승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유다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아합의 딸 아달라의 일시적인 통치 기간(7년)을 제외한다면 역성혁명은 거의 없었다. 또한 유다에는 '공동체정치'가 있어 왕과 아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유다는 군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뒤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남왕국의 관건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에 있었다.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였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숭배를 타파하였다. 그리고 앗수르의 산해탐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 물리쳤던 신실한 왕이었다.

요시아도 역시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 그것에 의한 종교 갱신을 일으켰던 왕이었다. 그는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남은 부분이었던 산당까지 모두 없애는 개혁을 하였다. 하지만 국제정세와 시대를 읽는 정치적 감각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 왕 바로노고와 싸우려 나갔다가 므깃도에서 전사했다.

이외에도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들이 여러 명 있었으나 다윗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신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도 많았고 혹은 처음부터 약한 왕들도 있었다.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결국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 신앙을 지켜 나가게 되어 그 정통성을 이어 나갔다.

**르호보암(931-913, 왕상 14:21-31, 대하 10-12장):**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41세에 왕이 되어 17년 간 통치하였으나 우상숭배를 하였고 애굽 사신의 침략으로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김. 관련 선지자: 스마야, 잇도

**아비암(913-911, 왕상 15:1-8):**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일부 성읍을 점령. 관련 선지자: 잇도

**아사(911-870, 왕상 15:9-24):** 하나님을 섬겨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세웠으나 최후에는 자만에 빠지며 선지자를 투옥시킴. 관련 선지자: 아사랴, 하나니

**여호사밧(873-848, 왕상 22:42-50):** 개혁 운동과 유대인에게 율법서를 가르치며 35년 간 통치함

**여호람(853-841, 왕하 8:16-24):** 여섯 형제를 죽이는 등 악을 행하다가 병으로 죽음. 관련 선지자: 오바댜, 엘리아

**아하시야(841, 왕하 8:16-24):** 악을 행하다가 예후의 군대에 의해 살해됨

**아달라(841-835, 왕하 11:1-16):** 아하시야의 아내로 악을 행하다가 유다 국민에 의해 살해됨

**요아스(835-796, 왕하 12장):**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하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리하며 매일 반제도 드렸으나 대제사장이 죽자 우상을 섬기고 꾸짖는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이는 등 악을 행하다가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함. 관련 선지자: 요엘

**아마사(796-767, 왕하 14:1-20):** 유다 왕국을 정리하며 애돔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패하여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 모반으로 피살됨

**웃시야(791-739, 왕하 14:21-15:1-7):** 여호와를 좇아 유다 왕국을 부강케 하였으며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해져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는 등의 범죄를 행하다가 문둥병으로 죽음. 관련 선지자: 이사야, 스가랴

**요담(739-731, 왕하 15:31-38):** 여호와 앞에 정도를 걸어 나라를 발전시켰으나 백성의 죄악을 다스리지는 못함. 관련 선지자: 이사야, 미가

**아하스(731-715, 왕하 16:11):** 친 앗수르 정책을 추구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며 성전의 기명을 뜯어내고 성전을 폐쇄시켜 버림. 관련 선지자: 이사야, 미가

**히스기야(715-686, 왕하 18:1-20:21):** 우상을 타파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화목제, 반제와 제사를 드리고 율법절을 지키도록 하며 앗수르의 침공 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사야의 권고를 받아들여 승리함. 죽게 될 때 15년의 생명 연장의 인약으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경험함. 관련 선지자: 이사야, 미가

**므낫세(686-642, 왕하 21:2-16, 대하 33:2-10):** 부쉬 버린 신당을 다시 세워 우상을 숭배하고 반대파를 죽이며 앗수르에게 예속된 나라를 만들다 하나님의 징계로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고 갈고리에 꿰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바벨론에서 앗수르를 섬기기로 서약하고 풀려와 회개하여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백성에게 명함. 이사야 사역 종결. 관련 선지자: 나훔

**아몬(642-640, 왕하 21:19-26):** 타락한 정치로 인하여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음

**요시야(640-609, 왕하 22:1-23:30):** 모든 우상을 제하고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약하며 율법절을 지키는 등 경건한 정치를 하였으나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함. 스바냐 사역 종결. 예레미야 사역 시작. 관련 선지자: 예레미야, 스바냐, 훌다 여선지자

**여호야아스(609, 왕하 23:31-33):**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야아스를 제거한 후 형을 왕으로 삼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 관련 선지자: 예레미야

**여호야김(609-597, 왕하 23:34-24:7):** 애굽 왕의 임명으로 유다의 왕이 되어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청종치 않고 암흑정치로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음. 하박국 사역 시작하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감. 관련 선지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여호야킨(597, 왕하 24:8-16):**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여호야킨은

일평생 바벨론에서 후한 대접을 받음. 관련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시드기야(597-586, 왕하 24:17-25:21):** 바벨론 왕이 맞다나야를 왕으로 세워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통치하게 만들었으나 바벨론을 배반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며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린 후 바벨론으로 잡아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둠으로써 남왕국 유다는 멸망한다. 에스겔의 예언 시작. 관련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오늘날의 유대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명칭인 그리스어의 Iudaios, 라틴어의 Judaeus, 프랑스어의 Juif, 독일어의 Jude, 영어의 Jew, 스페인어의 Judio, 러시아어의 Zhid 등은 모두 고대 히브리인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예후다)' 지파에서 왔다. 고대 히브리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유다지파가 다수였던 남쪽 왕국이 유다 왕국이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후 흩날려 흩어져 명맥이 끊긴 데 반해 유다 왕국의 후예들은 유대교를 계속 지켜 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유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1,800만 정도였으나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로 1,2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134개국에 1,400만 정도가 살고 있다. 미국에 580만, 이스라엘에 500만, 그밖에 캐나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등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유럽의 유대인 인구는 240만, 라틴 아메리카는 5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영방선교단 제공

## 바이블지식IN

### 그리스도인 부부의 성생활에서 허락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성적으로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고전 7:5)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이 구절은 결혼 생활의 성관계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행해지든, 서로가 동의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불편하게 여기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때는 절대로 권장이나 강요를 당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과 아내 둘 다 다른 것(구강 성교, 다양한 체위, 성인용품의 사용 등)을 시도해 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할 근거를 성경에

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에게 성적으로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스와핑, 난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스리즘, 포섬, 등)은 노골적인 간음입니다(갈 5:19; 었 5:3; 골 3:5; 살전 4:3). 당신의 배우자가 허락하고, 승인하며, 심지어 함께 참여하더라도 간음은 죄입니다. 포르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요일 2:16)을 부추기므로 하나님에 의해 역시 정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절대로 포르노를 그들의 성생활에 끌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서로가 동의하는 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하는 행위에 관하여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것은 없습니다. 갖케스천스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9:12 NIV  
But who can discern their own errors? Forgive my hidden faults.

- discern: (특히, 분명하지 않은 것) 알아차리다
- error: 실수
- hidden: 감추어진, 숨겨진
- fault: 잘못, 책임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 석양에 '어깨동무'해주는 친구

### 강정훈의 성서화 탐구

#### ◆ 강정훈 교수

강정훈 교수는 연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그리고 성균관대학원(행정학박사)을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영사 및 조달청장(1997~1999)으로 봉직했다. (사)세계기업경영개발원 회장 및 성균관대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신성대학교 초빙교수(2003~2016)를 지냈다. 미암교회(예장) 원로장로이며, 1994년에는 기독교잡지 새가정에 1년 2개월간 성서화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한 후 현재도 서울 성서화 라이브러리(<http://blog.naver.com/yanhwajin>)를 운영하며 성서화를 쉽고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년의 신비 성서화" "이천년의 침묵 성서화" 등이 있다.

#### 성경의 궁금증 성서화로 풀기

아티스트 W.P.M의 앨범 중에서 키즈 프레이즈 1집 "어깨동무"의 '저 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과 '하늘 땅 만큼 사랑해'를 좋아한다. 어깨동무는 친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숨김이 없이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친구이다.

친구의 시를 즐겨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친구이야기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유대 군병에게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요한복음 제14장-16장에 실린 고별사를 다락방 강화(The Upper Discourse)라고 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 갈 때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다.

나는 예수가 나사로와 제자들에게 부른 친구란 말이 영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작은 성서화 엮서 한 장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이름 모를 이집트 장인이 그린 '그리스도와 수도원장 메나'란 그림이다. 6세기 말에 제작된 이 이콘은 목판에 그린 콥트교회 기독교 회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후광에 십자가가 있는 그리스도는 사복음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수도원장 메나(AD285-309년경)의 어깨를 감싸



이집트 장인 | 그리스도와 수도원장 메나 | 목판에 유채 | 6세기. 57x57cm | 루브르박물관, 파리 Egyptian Unknown Masters | Musee du Louvre, Paris

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참다운 친구의 모습이다.

1900년에 프랑스 고고학자 장 클레드(Jean Clede, 1871-1943)이 중부 이집트의 바우이트(Bawit)의 거대한 성 아폴로 사원 유적에서 이 목판을 발견하였다. 현재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인물은 언덕을 배경으로 야외 풀밭에 정면으로 서 있다. 그들의 발에는 아직까지 풀들의 흔적이 보이며, 해가 넘어가는 오렌지 빛의 석양 햇살이 후광 뒤를 물들이고 있다.

그리스도 후광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뒷면에 구세주(Savior)란 명문이 있어 식별이 용이하다. 흑갈색 머리칼에 동그스런 얼굴, 도톰한 입술과 다듬어



순례자의 메나스 물병 '테라코타' | 'Terracotta' pilgrim's Menas flask

진 수염에 온화한 표정이다. 키가 메나보다 좀 더 크고 눈이 뚜렷하며 튜니카와 스카프를 걸치고 있다. 왼손에는 진주와 보석이 가득 박힌 사복음서를 들고 있다.

그리스도가 어깨동무한 메나는 후광 뒤쪽에 "수도원장 메나(Apa Mena Superio)"라는 명문이 보인다. 메나는 단지 콥트 수도원의 규례대로 왼손에 작은 두루마리 성경(Scroll)을 들고 있다. 메나는 길고 튼튼한 회색 수염에 짧은 회색 머리칼과 아연 얼굴로 튜니카와 스카프를 걸치고 있다.

6-7세기 비잔틴 시대에 이집트 Abu Mina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물병에는 메나스를 나타내는 상징물인



순례자의 메나스 물병 '테라코타' | 'Terracotta' pilgrim's Menas flask

두 마리 낙타 가운데에 선 성 메나스를 조각하였다. 현재 루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4세기 초에 그가 순교한 후 그는 질병을 낫게 하는 힐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났다. 알렉산드리아 인근의 Abu Mina에 있는 그의 경당에는 세계 각 처에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성 메나는 메나스(Menas)로도 불리며

지며 로마군대에 속한 이집트 군인으로 서 교회를 위해 놀랄만한 업적을 남기고 순교한 군인 성인으로 영웅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콥트교회는 물론 로마가톨릭과 동방정교회에서도 성인으로 추증(追贈)되었다.

이집트 고대 교회는 마가(Mark)의 선교로 이룩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일찍이 성 아타나시우스(St. Athanasius)와 성 클레멘트(St. Clement)같은 위대한 교부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콥트교회는 5세기에 로마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으로 분립되었다.

필자는 과묵한 탓인지 오래 동안 성서화 자료를 모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직접 어깨동무한 그림은 이 콥트교회 이콘 이외에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작은 엽서형 카드 그림이지만 너무 소중한 벽에 걸어놓고 보고 있다. 그렇게 쳐다 보다가 더러는 메나스 성인을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서있는 상상을 해 본다. 그 분이 직접 어깨동무 해주시며 친구라고 말하는 황홀한 꿈에 잠긴다.

어린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신 그분을 우리 청소년들이 만나 수다를 떨어도 좋다. 친구란 "항상 조잘넌 준비가 되어 있지/ 체면도 위선도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웃을 수 있지"하고 흥수희 시인은 노래하지 않았는가?

석양길의 인생들도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는 그분을 만나 메나스처럼 어깨동무해 주심을 받아 힐링받는 아름다운 정경을 꿈꾸어 보기를 빈다.

#### 오늘의 말씀

###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의 부르심

#### [좋은성경구절]

#### 로마서 1장 1절 묵상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이 한 절에는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 모두 담겨 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했다.

종은 주인께 온전히 속한 자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이는 주께서 먼저 종의 형

체를 입고 낮아지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사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아무 것도 아닌 종으로 자신을 낮추었으나 동시에 모든 것을 맡은 사도로 담대히 세워졌다.

바울의 인생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고백이 그의 신앙의 뿌리였다. 복음은 좋은 소식, 곧 승리의 소식이

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식이 바울을 달리게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 고백했다. 종으로 낮아지고 사도로 세워진 그의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졌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고백을 따라, 우리도 주께 속한 자로 낮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세워져야 한다.

#### 풍성한 묵상

###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미국의 목사인 칼 터틀은 결혼 가정 출신이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는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크리스천이 된 후, 어느 날 하나님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졌다. 그는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외로 나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15분이 지났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내에게 두 달 된 아기인 재커리를 보

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아기를 안아 울렸다. 아기를 안고 있으니 이 어린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가슴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울음을 터트리며 아이에게 말했다.

"재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게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갑자기 칼은 자신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다.

니키 겐틀 「인생의 의문점들」 중에서 출처: 햇빛같은이야기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교계·선교·NGO 동향

### 교계

2026년 3월 4일(수) 교계 주요 일정표		
구분	시간 및 장소	주요 일정 내용
공통	전국 각 지교회	사순절 제3주간 수요일예배 및 새벽기도회 거행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영주 풍기온천 리조트	WCC 신앙과직제회의 (최종일 일과 진행)
	온라인 Zoom (11:00~13:00)	총회장학재단 제110~11차 이사회 개최
	수원성교회	총회세계선교대학 개강 및 교육 과정 시작
	총회 본부	기독교문화대상 공모 접수작 기초 분류 및 행정 처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본부	총회 주간 일정에 따른 상시 행정 업무 수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백석대학교 (12:10~)	2026학년도 1학기 교외국가근로장학생 2차 모집 시작

사순절 제3주간 수요일인 4일, 한국 개신교계는 사순절 영성 회복을 위한 예배와 더불어 각 교단 및 연합기관의 주요 행정·교육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교회는 이날 사순절 제3주일을 맞아 수요예배 및 새벽기도회를 거행한다. 지난 2월 18일 '제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 기간이 중반부에 접어들어 따라, 각 교회는 사순절 찬양 및 기도회 자료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4일 다수의 일정을 소화한다. 먼저 경북 영주 풍기온천리조트에서 진행 중

인 'WCC 신앙과직제회의'가 이날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수원성교회에서 '총회세계선교대학' 과정이 개강하여 오는 5월 20일까지의 학기 일정에 돌입한다. 또한, 오전 11시에 온라인 Zoom을 통해 총회장학재단 제110~11차 이사회가 열려 장학 행정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마감된 '기독교문화대상' 공모와 관련해서는 접수된 자료의 기초 분류 등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소속 백석대학교는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026학년도 1학기 교외국가근로장학생 2차 모

집을 시작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본부 행정 업무를 상시 수행할 예정이 총회는 설정된 '총회 주간 일정'에 따라 다. 노형구 기자

### 선교

2026년 3월 4일(수) 선교 주요 일정표			
시간(현지기준)	단체/교회명	행사명 및 주요 내용	장소/비고
05:30 (새벽)	성북교회	수요새벽기도회 '새아침의 기도'	본당
09:40	시애틀형제교회	한어권 수요여성예배 개강 (주제: 부르심)	본당
10:30	강남중앙침례교회	수요새벽기도회 '새아침의 기도'	본당
09:40	시애틀형제교회	세움채플 집회 (강사: 최병락 목사)	본당 (주제: 회년, 회복을 넘어 자유로)
11:00 - 15:0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전도세미나 (서울지역)	서울 금천구 신일교회
18:00	미라클포인트교회	사별 회복 사역 'C-WOW' 개강	캘리포니아 라하브라 본당
종일 (1일차)	아신대학교 (ACTS)	2026학년도 1학기 신앙수련회 (강사: 이종빈 목사)	대학 강당 (3월 4일~6일)
종일 (4일차)	멜라랜드 카이로스	카이로스(Kairos) 선교 훈련 과정 진행	멜라랜드 헬로쉽교회 (3월 1일~8일)
상시 진행	KWMC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2차 참가 등록	공식 홈페이지 (3월 31일 마감)

국내외 주요 선교 단체와 교회들이 선교 훈련 및 교육 사역을 진행한다. 아신대학교(ACTS)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대학 강당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앙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 첫날인 4일에는 벨렐교회 이종빈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미국 멜라랜드 헬로쉽교회에서는 지

단 1일부터 시작된 '카이로스(Kairos) 선교 훈련'의 4일차 일정이 이어진다. 이번 훈련은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선교적 삶의 기초를 다루는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금천구 신일교회에서 '서울지역 총회 전도세

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광교회 전도국 등 교단 산하 주요 조직들이 참석하여 효율적인 전도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오전 10시 30분, 최병락 담임목사를 강사로 '세움채플 집회'를 열고 '회년, 회복을 넘어 자유로'라는 주제 아래 사역을 진행한다. 시애틀형제교회는 방학을 마치고 오전 9시 40분 '부르심'을 주제로 한 한어권 수요 여성예배 개강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라하브라의 미라클포

인트교회는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회복 사역인 'C-WOW'를 오후 6시에 개강한다.

기독교 선교 연합 기구인 KWMC(한인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5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2차 등록 절차를 3월 4일 당일에도 지속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2차 등록은 오는 3월 31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교회는 새벽 5시 30분 '새아침의 기도' 수요새벽기도회 일정을 진행하며 당일 일정을 시작한다. 장지동 기자

### NGO

2026년 3월 4일(수) NGO 주요 일정표		
단체명	주요 사업 및 일정 내용	현황
지파운데이션	취약계층 여성 생리대 키트 지원사업 신청 접수	18:00 최종 마감
다일공동체	2026년 상반기 신규 인력 채용	면접 심사 실시
희망친구 기아대책	청년도시락(가족돌봄청년 식비 지원)	접수 진행 중
	희망동지 SOS(위기가정가정 긴급지원)	
	기대드림(위기 이주배경 가정 긴급지원)	
밀알복지재단	결식아동영양지원사업(2회차 영양 지원금 지급 및 사례 관리)	사업 수행 및 교육 진행
한국컴패션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아동 교육	캠페인 진행 중
	2026 사순절 필사 캠페인 '두려워말라' (토고 어린이센터 태양광 시설 구축 후원 연계)	
생복지재단 / 굿피플	사순절 '40일간의 동행' (북한 어린이 영양 개선 및 해외 아동 지원 기도/모금)	캠페인 진행 중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1학기 집중 활동 및 교육 자료 신청 시스템 운영	사업 수행 중
한국해비타트	'3.1렌 캠페인' 2차 결제 건 기념품 및 물품 발송 업무	행정 업무 진행
나눔과 기쁨	3월 차시 '희망나눔 밀반찬 전달 사업'	운영 및 전달 중
수원다시서기	거리 노숙인 특화차(수공업) 근로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중

국내 주요 기독교 NGO들은 사순절 절기 캠페인과 더불어 각종 지원 사업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파운데이션은 당일 18시를 기해 '취약계층 여성 생리대 키트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다일공동체는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를 당일 실시하며, 국제기독교사회책임개발 협력기구(ICSRD)는 상반기 인력 모집 접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한국컴패션은 성경 필사와 토고 어린이센터 태양광 시설 구축 후원을 연계한 '두려워말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복지재단과 굿피플은 북한 및 해외 아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40일간의 동행' 기도 및 모금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청년도시락, 희망동지 SOS, 기대드림 등 위기가정 지원 사업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밀알복지재단은 결식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2회차 영양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례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교육 과정도 당일 운영될 전망이다.

월드비전은 '꿈꾸는 아이들'의 1학기 집중 활동을 수행하며, 나눔과 기쁨은 3월 차시 밀반찬 전달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최근 종료된 3.1렌 캠페인 관련 기념품 발송 업무를 이행하며,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자활을 위한 수공업 근로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 총신대, 3월 '시대 속 교회: 땅끝 목회' 포럼 개최

총신대학교 개혁신학연구원 주최로 주관하는 2026년 봄 포럼이 오는 3월 31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총신대 신대원 제3 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시대 속의 교회 - 땅끝 목회'다.



이번 행사에는 <성경과 교회사 강요>의 저자인 이춘식 목사가 강연자로 참여한다. 해당 저서는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한반도 통일'을 신앙적 차원에서 조망한 것이 특징이다. 이춘식 목사는 전북 진안 배남실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농촌 공동체 회복에 힘써 온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01년 마로덕 선교사가 세운 배남실교회에 30대 초반에 부임했다. 이후 용담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 위기에 놓이자, 이 목사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나안 나눔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영세 수물민과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활동과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강연 등을 이어갔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지역 자립을 돕기 위해 마을위원장을 맡아 농업 기술을 직접 익힌 뒤 주민들에게 전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 테마 마을과 향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역으로 그는 '배추 목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 목사는 저술을 통해 한국교회가 통일이라는 과제를 영적 사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회개 운동이 교회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며,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인용해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권면한다.

아울러 통일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남과 북, 좌와 우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을 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고, 힘과 지배의 논리가 아닌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럼은 이상용 처장의 사회로 시작해 개회사와 박성구 총장의 격려사, 강웅산 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이춘식 목사(성경과 교회사 강요), 유승삼 목사(내 가슴을 펴게 하는 한 단어), 조기쁨 목사(같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다)가 각각 맡는다. 이후 이상용 처장의 진행으로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 강원교육자선교회 '2026 연찬회' 성료... 부활 신앙으로 다음 세대 세운다

### 전국 16개 시도 교사·성도 300여 명 참석 기독교 역사와 부활 신앙 중심으로 교육 선교 방향 모색

강원교육자선교회가 주최한 2026년 연찬회가 최근 춘천한마음교회 본당에서 열렸으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교사와 성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연찬회는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교육 선교의 비전을 확립하는 자리였다.

이번 강원교육자선교회 2026 연찬회에는 강원 지역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 75명과 스텝 18명, 성도 2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기독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다.

연찬회는 단순한 집회나 행사에 머무르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함께,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기독교 역사와 부활 신앙'이라는 주제는 모든 세션을 관통하며 강원교육자선교회 연찬회 중심 메시지로 자리했다.

참석 교사들은 학교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

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부활 신앙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부 예배 세션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용국 교수가 강사로 나서 기독교의 본질과 부활 신앙의 능력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부활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역의 목표 달성에 앞서 살아 있는 복음을 통해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하며,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모든 교인이 제사장이라는 '만민 제사장' 정신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원리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토대로 형성된 공동체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2026 강원교육자선교회 연찬회가 춘천 한마음침례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강의를 들은 김세영 교감은 부활 복음이 전국과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으며,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더욱 분명히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병석 교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 신앙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 참석한 김태희 방과후교사는 로마 시대의 핍박을 이겨낸 초대교회처럼 오늘의 교육 현장도 부활 신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강의 이후에도 부활 신앙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활

발히 의견을 나눴다.

2부 세빛나 세션에서는 강원교육자선교회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구체적인 교육 선교 비전이 제시됐다. 백한진 회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복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참여 교사들이 동일한 모델을 통해 강원도와 대한민국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각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갈 것이라는 확신을 전했다. 그는 눈앞의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했다.

인천지방회 이진영 회장은 축사를 통

해 교육 현장을 영적 전쟁터에 비유하며, 굳건한 부활 신앙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서기성 사무국장은 유튜브 '세빛나캠프' 채널을 통한 숏츠 영상 제작, AI 성경 암송곡, 라이브 찬양 등 온라인 사역 확장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복음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후 나눔 세션에서는 원주 서곡초 박은혁 교사가 '기독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주제로 학급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강의는 강원도교육청 1급 정교사 연수에서도 진행된 바 있으며, 연수 과정에서 호응을 얻었다.

박 교사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앞서 왜 가르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움의 의미를 찾게 하는 수업을 지향한다고 밝히며, 졸업식 상영용 뉴스 제작과 실제 수 학생여행 계획 수립 등 삶과 밀접한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공모전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이끈 사례를 나누며, 기독교사는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하기를 맞는 진정한 준비는 어떤 모습의 학생이든 사랑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 후 박 교사는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자신의 나눔이 몇 명의 교사에게라도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에 참여한 김미선 교감은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기독교 교사를 길러내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교사가 보여준 기쁨과 열정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강원교육자선교회는 이번 2026 연찬회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교육 선교 사역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연대와 실천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강원교육자선교회 2026 연찬회는 부활 신앙을 통해 기독교 사명의 재확인하고, 교육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색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학교와 지역 사회 안에서 부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장지동 기자

## 네덜란드 교회, 'Samen Jong'으로 다음세대 참여 확대

### 세대통합 사역 실천서 출간... 청년 이탈 대응 본격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내셔널(CDI)은 네덜란드 교회가 다음세대 참여를 돕기 위한 실천 지침서를 출간하며 세대통합 교회 모델 확산에 나섰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Samen Jong in de Praktijk'(영 투게더 인 프랙티스, Young Together in Practice) 워크북 제2권이 공식 발표되며, 네덜란드 교회가 청년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출간은 지난 13일 네덜란드 에데(Ede)에 위치한 크리스텔리케 호게스쿨 에데(Christelijke Hogeschool Ede)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식 소개됐다.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사비네 판 데어 헤이던(Sabine van der Heijden) 연구자, 미시에네덜란드(MissieNederland)의 사스키아 더 그라프-바커(Saskia de Graaf-Bakker), 2025-2026년 '네덜란드 올해의

젊은 신학자로 선정된 24세 로자마린 오르셀(Rozamaryn Orsel) 등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MissieNederland, Christelijke Hogeschool Ede, Kerkpunt, 위트레흐트 신학대학교(Theologische Universiteit Utrecht)가 협력해 추진했으며, 네덜란드 교회 내 세대통합 사역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MissieNederland의 마르티네 베르스테어터 베인(Martine Versteeg-ter Veen) 대표 겸 총무는 네덜란드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대 간 공동체성 약화와 청년층 교회 이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속할 수 있는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북은 미국의 'Growing

Young'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네덜란드 교회 현실에 맞게 재구성됐다. 특히 전통적 의미의 청소년 사역 확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세대통합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였다. 단순히 청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이 강조됐다. 베르스테어터 베인은 이를 실천신학 내 독립적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론서로 먼저 출간된 이론서 '초록색 책' 이후 수백 개 교회가 이 비전에 동참했으며, 이번 제2권은 11개 교회와 여러 기관, 대학이 참여한 전문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의 1년 이상 현장 연구 결과를 담았다. 현장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분석한 실행 연구(action research) 성과가 정리됐다.

CDI는 Samen Jong 운동이 세대통합 교회의 건강성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두는 것, 오늘날 청년 세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 젊은 세대를 리더십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지역사회에 선택이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로자마린 오르셀은 "첫 번째 책이 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이번 워크북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돕는 실천적 안내서다. 세대통합 교회가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을 넘어, 서로를 보고 듣고 배우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간 행사에서는 '감사 중심 교회 형성의 다섯 단계를 중심으로 세대통합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Xpeditie 3.6.0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세대 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네덜란드 에데(Ede)에 위치한 크리스텔리케 호게스쿨 에데(Christelijke Hogeschool Ede)에서 열린 'Samen Jong in de Praktijk' 출간 기념 행사 모습. ©Photo by Missie Nederland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The Service with All Generations)'를 주제로 세대 간 관계 형성의 실제적 접근을 다뤘다.

행사에서는 민수기 정탐꾼 이야기에서 착안한 상징적 순서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포도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보는 신앙적 태도를 되새겼다.

이 날은 동시에 사비네 판 데어 헤이던 교수의 은퇴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CDI는 Xpeditie 3.6.0이 이번 출간이 네덜란드 교회 내 세대통합 사역 확산의 중

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 전역 수백 개 교회가 이 철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력 모델 역시 강화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일회성 출판 행사에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 교회가 다음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장기적 여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세대통합 교회 모델은 청년 사역의 보완이 아니라, 교회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 여호사밧의 법칙 1

여호사밧 왕은 “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배를 임하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나..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서 사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대하 20:21, 22, 24).



김영국 목사

건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하 17장에서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과 유다의 행동은 우리에게 영적 영역에서 승리를 얻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본보기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사밧의 행동법칙”의 각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와 훈련

“아사가 ...죽고...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자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대하 16:13; 17:1,3).

여호사밧의 성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행정경영의 본을 따르려는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그는 하나님을 자신과 나라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 갈망은 여호사밧이 예배를 정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하 17장 6절은 다윗의 원리를 따르며 예배의 정화에 대한 열심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줍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와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이것은 그 행동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단계였습니다. 또한 군비 증강이

지역 단위로 착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대하 17:1-2). 이것은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쾌적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란 뜻이므로 유다의 성읍들은 찬양의 현주소, 즉 지역 교회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성읍들을 보장하는 것은 찬양하는 지역교회들을 강화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대 사회의 “유다의 성읍들” 속에 영적인 힘을 놓아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과 경배의 성경적 형태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적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 전국적인 교육운동을 착수했습니다. 대하 15:3절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제사장 없이 지내왔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원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역을 다시금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니 “저희가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대하 17:9).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어졌다는 기록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시한 그들의 주된 책무 중 하나는 음악적 매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대상 16:4, 37-42을 대상 25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음악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대상 25:8). 유대인의 문서에서 나온 출처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성경말씀은 영창(음악적 낭송) 없이는 좀처럼 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낭송함(reading distinctively)은 동방적인 개념에 따라 표현이 풍부한 낭독에 필수적인 운율적 언어표현과 구어의 선율적 변화의 명백한 암시이다”(A. Sendrey, Music in Ancient Israel, London, 1969, p.211). 이처럼 음악은 훈련과정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 사전 준비의 결과

여호사밧의 사전 준비와 훈련의 초기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주위의 나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유다와 싸우려 하지 않았으므로(대하 17:10) 유다왕

국은 변영의 시기로 들어갔습니다(대하 17:11-12).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찬양 원리(God-glorifying principles)를 따를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시 72와 시 68:29). 전국적인 교육 운동은 유다에게 제왕들의 권세를 무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아낌없는 찬양과 양념의 겸을 사용하기를 가르쳤습니다(시 149:6-9와 엡 6:17을 대조하십시오). 그들은 승리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도의 한 수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탄의 소행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 대신에 신령한 건강을 경험하며, 구원(deliverance) 대신에 하늘의 질서와 거룩함 속에 살고, 우울증으로부터의 자유함 대신에 기쁨에 넘치

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위기 가운데 서만 기도하는 대신 기도의 삶을 삽니다.

대하 18장은 여호사밧이 평화와 변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떠맡았는지를 기술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악한 아합 왕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실수로 그는 한 전투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대하 20장의 두 번째 대치 국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대하 19장은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고비 후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그의 헌신이 전쟁에서 시험되었지만, 그의 마음과 나라가 하나님을 찾을 각오와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대하 19:3)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여전히 그의 불순종의 결과는 거두어야 했습니다(대하 19:2).

### ◆ 김영국 목사

대광고와 한양대학을 졸업하고 1974년 미국으로 이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신학과 음악목회를 전공하였고 척 스윈돌 목사와 그의 음악 목사인 하워드 스티븐슨의 영향을 받았으며 27년동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큰빛한인교회서 사역했다. 지금은 음악목회연구원을 통해 그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음악목회 프로그램' '성공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과 경배'(한국장로교출판사)가 있다.

# 시간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완성 2

지난 칼럼에서 나는 예배팀 서로 간에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해 나누었다. 하지만 팀원 간 시간 준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중을 위해서 시간을 준수하는 일이다. 회중과의 시간 약속에 대해 크게 찬양을 시작하는 시간과 찬양을 마쳐야 하는 시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고용일 목사

시 전이나 9시 정각에 성도들이 몇 명 없다고 정해진 예배시간을 여겨서는 안 된다. 예배인도자가 생각할 때 자신이 준비한 콘티가 스스로도 기대될 만큼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싶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곧 일찍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이다. 어차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극소수의 사람은 예외로 두더라도, 일찍 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자! 예배 공동체의 부흥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다.

### 찬양 마침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예배찬양 시간

을 자유롭게 주지 않는 이상, 교회의 규정에 맞게 마치는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다음 순서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물론 성령이 꼭 예배시간에 구애받으며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드 그룹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는 있다. 하지만 삼상 15:22은 우리에게 “순종이 (더 나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나는 가테말라에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3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주일예배 후 대통령궁 근처 홀에서 열린 한 대중 집회에 초대받은 일을 위해 동행한 적이 있었다. 3분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스케줄상 오후 2시 30분 즈음이었다. 2시에 미리 도착한 우리는 뜨거운 찬양의 열기로 그 홀과 참석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문화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 내가 미국에서 중미 계열 사람들의 예배와 과테말라 중남미 사람들의 예배에 참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 두 예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중남미 계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마치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천상의 시간 개념)을 따르는 것 같았다는 특징이다. 예배를 인도하던 찬양팀에는 두 명의 인도자가 있었고 그 인도자들은 서로 번갈아 가며 한 곡씩 인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인도자들이 찬양 한 곡을 부르는 시간보다 찬양 전에 멘트

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는 그날 3분 메시지 후, 오후 4시에 또 다른 성도를 심방할 계획이 있었고, 6시에도 다른 성도 한 분을 급하게 심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찬양 중에 인도자가 하는 그 멘트의 길이에 인해 우리는 스케줄상 2시 30분에 있었던 3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2시부터 약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만 했고 원래 잡혀 있었던 4시 심방은 취소해야만 했다.

예배팀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치는

시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사역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신 질서를 따르기 위해 이따금 절제가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예배팀의 사역일 것이다. 만약, 예배사역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배인도자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의논하여 찬양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간혹 시작 시각 전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단,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잘 준비하여 되도록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섬김이 될 수 있다.

### ◆ 고용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폴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LA 카운티 지역에 소재한 주안교회에서 예배사역을 하고 있다.

##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양화진문화원, 제13회 양화진역사강좌 개최...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양화진기록관 아카이브 개관 기념 3월 12일부터 3주간 진행...  
웹본 부부-출 가문-전택부 선생 조명, 전 강좌 무료 진행

한국기록교100주년기념교화(담임 강요섭 목사)가 설립한 양화진문화원(원장 김현)이 제13회 '양화진역사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를 주제로 2026년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양화진문화원은 문화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한 부설기관이다. 초대 명예원장으로는 고(故) 이어령 교수가 선임되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인 김

현 원장이 문화원을 이끌고 있다. 문화원은 '양화진목요공감'과 '양화진역사강좌'를 통해 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시작된 양화진역사강좌는 올해로 14년째를 맞았다. 일반 역사와 지난 100년의 기록과 역사를 함께 조명하며, 한국 기록교 200년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모색하는 강좌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제13회 강좌는 양화진기록관 아카이브 개관을 기념해 마련됐다. 양화진 기록관에 유품이 기증된 웹본 부부와 출탕으로 성경 기록을 해설할 예정이다.

함으로써 기존 자료의 가치와 그들의 삶과 사역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3월 12일 첫 강의는 김일환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가 '유교의 심장에 복음의 씨를 뿌리다'(웹본 부부의 개척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3월 19일에는 흥민기 박사(명지대학교 교수)가 '조선의 눈물을 닦다, 출가 이야기(출 가문의 의료 선교 이야기)'를 전한다. 3월 26일에는 이덕주 박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가 '잊혀진 기억의 전달자, 오리 전택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 강좌를 수강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신청과 강좌 동영상, 자료 사진은 양화진문화원 홈페이지(<http://www.yanghwajin.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지동 기자

# 서울신대, '2026 STU-Hillsong College 예배찬양 컨퍼런스' 개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가 Hillsong College와 함께 '2026 STU-Hillsong College 예배찬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체결한 교류협약(MOU)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26일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오전 11시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찬양집회가 열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전 집회는 뉴송워십이 섬기며, 저녁 집회는 Hillsong College 밴드와 힐송 서울캐넥트가 함께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Hillsong College에서는 부총장 Lee Burns 박사와 예배음악 교수 Adam Dodson을 비롯해 10여 명의 밴드 학생들이 방한한다. 컨퍼런스 강사진으로는 Lee Burns 부총장과 Adam Dodson 교수 외에도 어노인팅 및 다리놓는 사람들 대표를 역임한 박철순 대표, 흥대 지역에서 청년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김상이 교수가 참여한다. 강의는 워십팀 빌딩과 리더십, Hillsong Worship의 창의적 사역, 예배 코드 작성의 원리와 실제, 다음세대 위한 예배 사역, 워십밴드 마스터 워크숍 등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최는 오는 26일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오전 11시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찬양집회가 열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전 집회는 뉴송워십이 섬기며, 저녁 집회는 Hillsong College 밴드와 힐송 서울캐넥트가 함께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저녁 찬양집회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마스터 클래스 수강을 원하는 경우 회비 3만 원의 유료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자에게는 중식과 석식, 자료집이 제공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인은 1만 원 할인된 2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나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3월 15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한편, 참가 신청은 포스터와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한 온라인 신청 링크로 가능하다. 행사 관련 문의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교학과(032-340-9265) 또는 이메일([stuhillsong@gmail.com](mailto:stuhillsong@gmail.com))로 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 CGN '나침반Q' 노아홍수 특강 개최... 이재만 선교사 서빙고온누리교회 강연

CGN이 노아홍수를 지질학적·과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토크콘서트 '나침반Q'를 개최한다. CGN은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특강 형식의 '나침반Q'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홍수의 의미를 과학적 자료와 지질학적 시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CGN은 신학과 과학의 접점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강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연에는 CGN 콘텐츠 '방주타GO'에 출연한 이재만 선교사가 나선다. 이 선교사는 성경 속 과학 이야기를 쉽게 전달해 온 인물로, 이번 특강에서 노아홍수와 관련된 지질학적 현상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경 기록을 해설할 예정이다. 행사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

며, 취재를 원하는 언론 관계자와 일반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사전 연락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CGN 측은 밝혔다. 이번 '나침반Q' 특강은 노아홍수를 현대 과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승연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일산교회 40 하나님의 손길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CBS 은혜의 시간(97회) 3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용)	10 장준혁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예배스-김형진 30 생명의 말씀 부산총회-김대훈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914회)	00 생명의 양식 삼송(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350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3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신약(19회)
7:00	00 CTS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50 생명의 말씀 장원삼-이창교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20 행복한 쉼터 한중사랑 (서영희) 50 비전설교 한성 (도원욱)	30 휴먼넥트(33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3회)	00 청운교회 주일예배실황 이필산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 40 서정희의 매일성경(3회)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행복한 쉼터 대구서문 (소문수)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572회)	00 하나님의 음성(176회)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47회) 창세기 17강	00 소문난 성경교실(643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1강 육중사신 1: 육중사신의 배경 30 비전메시지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신교회행진(1회) 순복음삼미교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다니엘 1장 김기현 목사	0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30 비전설교 선한목자 (김다우)	0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20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50 구역의 세계로 (오십소)(21회)	10 새롬게하소서(11411회) 송중현 나은비 부부 2부	00 폴다보연(88회) 요셉 1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7회)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다큐 더 로드 30 여의도순복음 수요일예배 이영훈 목사	20 휴먼넥트(67회)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온누리교회 SNS청년부-(60회)	00 CBS NEWS 10 20 맨투맨 처치(1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68회)	00 김재원의 광야예배(4회) 김의신 의학박사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3회)
11:00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스리랑카 / 김경성 선교사 50 신앙예배	30 행복한 쉼터 화광 (윤호균)	1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377회) 50 예수동행일기(8회)	00 만나는 교회(26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4회) 장찬영 목사 여덟 번째 2강 육중사신 1: 총만한 배경 30 C채널 매거진 근데이(368회) 50 믿음의 리액션(25회) 제주도 1부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하늘중앙-유영완	00 GOODTV 뉴스 30 사랑의 메시지 마리아나 (이영은)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예배교회)(538회)	00 TV강단 시온(박성준)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30 강연소 통(51회) 부모와의 관계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 든다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반야월-이승희 30 신앙예배 40 서정희의 매일성경(3회)	00 행복한 쉼터 군포사랑 (성권용) 30 행복한 쉼터 높은뜻정의 (정재상)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16회) 2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248회)	20 2025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1회)	20 대한민국 복음이 담이다 30 비전메시지 세주 생수는교회 최병남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442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3555회) 서동주(방송인)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온누리교회 수요일예배(383회)	0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30 새롬게하소서(11057회) 노진준 목사 2부	00 백석의 선포(20회)
15:00	4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스리랑카 / 김경성 선교사	00 기억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314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45회) 고린도전서 27강	00 2026 명성교회 3월특별사백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두란노-이상문	00 사랑의 메시지 성찬 (오원호) 30 사랑의 메시지 수영로 (이규현)	00 하용준 목사의 창세기 강해(39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319회)	10 질질법 스페셜(1회) 김학철 교수 50 더 콜링(168회)	00 내 삶의 행복(19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신약(19회)
17:00	00 사랑의 말씀 오정현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00 류영모 목사의 멋진 이야기 20 행복한 쉼터 순복음축복(오영대) 50 선교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33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5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46회) 50 영혼의 양식, 양천(김동민)	00 성지가 좋다(519회) 갈릴리로 가는 순례길 3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예원-정은주 30 TV찬양예배 한성교회	20 분다큐 더 로드 40 분다큐 깊은 울림 여의도침례 수요일 워십	10 아메리카로 오십소(3회) 50 2026 KOSTA WORLD IN JEJU(4회)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함마(남상진)	30 복음강단 군포세진교회 안성복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광림의 시간 김정석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50 2026 KOSTA WORLD IN JEJU(4회)	00 거룩한 뜻 세운의 시간(49회)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인천제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일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찾아서 10 행복한 쉼터 감사드림 (차영아) 40 혼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RE바이블(18회)	00 한소망 말씀 (최봉규)(159회) 50 크리스찬칼럼, 동탄살아있는(서정현)	30 글로벌 신앙토코소 왓츠업(48회) 친구가 꼭 필요할까?
21:00	00 메신저스 원유경 목사 30 서정희의 매일성경(3회) 50 CTS뉴스	1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40 GOODTV NEWS	00 청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447회) 창세기 17강 50 살롬 샬롬(42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07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다니엘 1장 김기현 목사	00 사론의 꽃 필 때 12세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충성! 은혜로군(48회)	00 CBS NEWS 10 20 새롬게하소서(11411회) 송중현 나은비 부부 2부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7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1회) 이석훈 목사 여덟 번째 19강 언어로 보는 시편 : 하나님 자녀라는 기적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역(21회)
23:00	10 [CTS믿음의 명작] 별세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야 산다 제3부 별세의 시편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시드피어(7회) 12세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1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7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10 맨투맨 처치(10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60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3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8회)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3회)
24:00	00 Calling GOD(2442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명사들의 명강 40 더 깊은 울림 헤세드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674회)	10 CBS 아카데미 숲(209회)	00 사랑의교회 허-남은 사랑이시라 오정현 목사
1:00	00 더 초존 시몬(54회)(1회) 15세	0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담 10 예배실황 한소망 (류영모/최봉규)	00 [말씀] 이윤조 목사(갈보리교회)(364회) 4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63회)	00 통복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58회) 40 생명의 시대(30회)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불렀던 이야기(61회) 40 성경 속 전령사-에피소드
2:00	1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스리랑카 / 김경성 선교사	10 노크토크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81회)	30 말씀의 힘 양곡(지용수)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김명산 목사의 365 매일안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64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다니엘 1장 김기현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GOODTV 특별강중	00 [Global Sermon] J.D. Greer's The Life Of David(7회)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297회)	00 율포원(714회)	00 만나 워십 김명산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 (조건희)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24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성)(4446회) 마태복음 20장 50 CBS 교회소식(1040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4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매점기(461회) 고린도전서 9장 맥잡기 9